



9 BOM NAE

2013 SEPTEMBER No.273

Since 1993
20th
시정소식지 창간 20주년



중국 관광객 닭갈비 투어

중국 47개 지역에서 온 중흥보험사 직원 400여 명이 춘천을 찾았다.

지난 9월 9일 관광버스 10여 대에 나눠 타고 온 관광객들은 시청광장에서 국악 공연을 보고 명동으로 이동해 닭갈비 골목을 점령했다.

투어 참가자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닭갈비 맛에 폭 빠져들었다.

춘천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등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



- 04 포커스 | 2013 춘천물레길 페스티벌
- 06 이슈&이슈 | 무상급식비 학부모님들이 내라고요?
- 08 춘천은지금1 | 국내 최대규모 전력IT문화복합산단 준공 가동
- 10 춘천은지금2 | 달동네가 관광지가 된 사연
- 14 특집기획 | 소양강댐 준공 40주년
- 17 행정뉴스 | 사북면 가일리 가는 길 좋아져
- 19 생활뉴스 | '소양강문화제'
- 21 같은생각 같은취미 | 노래하는 아침하늘
- 22 우리고장기업 | 세린식품(주)
- 24 춘천의 자연 | 납자루, 내평리 굴참나무
- 26 구석구석 춘천⑧ | 동내면 사암2리 수살대
- 28 춘천 시간여행⑨ | 기생 "문화 전승의 징검돌을 놓다"
- 30 건강춘천 | "함께 뛰실래요 희망달리기?"
- 31 낭만춘천 | "셀프니까 이발비는 오천원"
- 34 행복춘천 | 나눔으로 인성 쌓는 한샘고 학생들
- 36 안전춘천 |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인입니다
- 38 의정소식
- 40 봄내골소식
- 42 알림마당
- 48 광고 |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표지이야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너무 어려워요

춘천시립도서관이 마련한 2013 책축제 장에서 유치부 어린이 다례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두고 차(茶) 예절을 배우고 있다.
어린이들 눈빛은 호기심 반, 낯설음 반으로 반짝인다.
지난 9월 15일부터 이틀 간 열린 축제는 할머니 무릎동화 읽기, 빛 그림자로 그림책 읽기, 연날리기, 공지어 만들기, 네일아트, 도자 핸드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풍성하게 열렸다.



봄내 | 273호(2013년 9월) / 비매품 발행인 | 전주수 기획 및 디자인 | 춘천시 공보담당관(033-250-3229, 250-4169)
창간일 |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 2013년 9월 25일
봄내는 <http://www.chuncheon.go.kr> 에서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웹진 구독신청은 연중 받고 있으며, ccc3@korea.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름, 이메일주소, 연락처 기재)

2013 춘천물레길 페스티벌

2013 춘천물레길 페스티벌이 지난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송암동스포츠타운 물레길 일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탁트인 북한강과 가을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을 물레길을 타며 몸으로 체험했다.

카누 슬라럼, 프리스타일, 카누 마라톤 등 현장 접수를 통해 진행된 프로그램은

카누를 좀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춘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물레길. 그 독특한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자.





무상급식비 학부모님들이 내라고요?

지난 9월 17일 춘천교육지원청은 춘천지역 무상급식 관련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가정통신문에서 올해 유,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63%의 비용을 부담하고 도와 각 시,군이 18.5%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질문1

인건비를 포함한 시,군 부담률은 일방 결정한 것 아닌가요?



시,군 부담률은 시,군과 사전 협의없이 교육감과 도지사가 일방 결정한 것입니다. 시,군의 예산 부담이 따르는 사안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군에 그만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질문2

시장, 군수님 모두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나요?

교육청은 또 강원도의 타 시,군에서는 분담 예산 전액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춘천시만 예산을 적게 편성해, 최악의 경우 춘천지역 학부모들은 모자라는 급식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독 춘천시만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난 1월에 인건비를 제외한 20%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3

학부모에게 떠넘기려는 돈은 밥값이 아니라 인건비 아닌가요?



학부모님들이 내야 한다고 하는 돈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와 운영비가 아닙니다. 급식종사원 인건비입니다. 춘천시는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은 다 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인건비까지 달라고 하다가 안되니까 학부모님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급식종사원은 강원도교육청 직원입니다. 자신의 직원 월급을 전혀 관계없는 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월급을 시,군에서 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급식종사원 인건비는 무상급식 시행 주체인 교육감이 책임져야 합니다.

질문4

교육감님! 작년에 쓰다가 남은 돈 1,100억원은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교육부는 지난 7월 무상급식에 쓸 수 있는 예산 51억원을 강원도 교육청에 뒀습니다. 이 돈이 부족했습니까? 그렇다면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1,100억원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만한 돈을 남겨가면서까지 굳이 학부모님들에게 고지서를 보내 인건비 9억을 징수하는 것을 보면 그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과 ☎250-4077>

화합
춘천

춘천 성매매 집결지 ‘난초촌’ 대화와 타협으로 60년 만에 사라진다

전국 최초, 업주들 자진폐쇄 이끌어 내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캠프페이지 주변에 생겨난 성매매 집결지 ‘난초촌’이 60년 만에 사라져 10월이면 완전 정비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난초촌에 대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 그 때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올 1월부터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곳을 출입하며 대화를 시도했고, 현지에서 피해여성들의 상담소인 열린터를 운영했다.

공권력을 동원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난초촌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명령이 아닌 대화와 타협, 다른 직업과 삶에 대한 방향 제시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서서히 난초촌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운영조례를 마련, 탈성매매에 대한 약속서를 쓴 52명의 성매매 여성들에게겐 특별생계비 천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한 건물주에게는 토지 보상과 세들어 영업을 하던 업주에게는 600여만원의 이주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한터회 춘천시지부 성매매 업주들이 업소를 자진폐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지난 5월에 했던 것이다.

난초촌 자리에 주차장과 공원 들어서

춘천시는 난초촌을 구성했던 성매매업소와 일반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철거에 들어갔고 나머지 건물들도 매입을 추진, 10월까지 모두 철거된다. 철거된 이곳엔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공원이 들어선다.

김준우 복지국장은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또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을 듯하다”고 운을 떼며 “협조해 준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전국 최초란 기록을 세운 난초촌 자진폐쇄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으로 출퇴근하며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영업이 끝나는 새벽 2, 3시 그녀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다 받아주며 큰일을 성사시킨 홍문숙 여성담당.

그녀는 요즘도 타 지역으로 이주한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 “저 이제 다른 일해요” “상담할 일 있음 전화 드릴게요” “이번을 계기로 힘내서 열심히 살게요”

업주들의 자진폐쇄로 큰 마찰 없이 성매매 집결지가 춘천에서 사라졌다는 건 그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도 절대 희석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가족과 ☎250-3117>



국내 최대 규모 전력IT문화복합산단 준공 가동

KD파워 등 16개사 입주 연간 매출 4,000억 기대

문화·예술·휴양시설 연계한 자족도시 목표

춘천 전력IT 문화산업단지 ‘썬시티 카이로스’가 지난 9월5일 춘천시 남산면 현지에서 입주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008년부터 남산면 창촌리 53만㎡ 부지에 1,300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산단은 국내 전력IT 관련 단지로는 최대 규모다.

춘천지역에서 가동 중인 산업단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인 썬시티 카이로스는 아트 빌리지, 조각공원, 야외 공연장, K-POP뮤지컬 대학, 호텔 등 문화와 산업단지를 접목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내에는 KD파워를 비롯한 자회사와 협력사, 기초전력연구원 등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한 16개 업체에 500여명의 직원이 우선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 1,500명까지 직원 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산단은 KD파워 주공장을 비롯해 8개 건물로 이뤄졌으며 스마트 배전반과 태양광 시스템, 발전기, LED조명 등 전력IT 제품들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까지



“

썬시티 카이로스는 아트빌리지, 조각공원, 야외 공연장,
K-POP뮤지컬 대학, 호텔 등
문화와 산업단지를 접목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

수출하게 되며 연간 4,0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썬시티 카이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으로 태양광 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부문의 선도, 제조공장들의 집적단지만이 아닌 공공주택과 휴양시설, 문화예술 공간을 아우르는 완전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 등을 종합해 이름 지어졌다.

전주수 춘천부시장은 “신개념 문화복합단지인 썬시티 카이로스는 첨단도시 춘천을 이끄는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입주식에는 각계 인사 1,000여명을 초청해 국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행사를 마친 입주 회사 관계자들이 춘천지역 재래시장에서 2,500만원 상당의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행사도 가졌다.



춘천시문화재단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대구, 창원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마을공동체, 문화사업 성공사례를 찾아 견학을 실시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사업과 도심재생이란 주제로 실시된 현장교육은 강원권역 문화인력, 춘천시 도심재생과 등 39명이 참가해 문화인력 실무 역량을 키웠다. 또한 인력 간 교류와 현장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만드는 기회를 가졌다.

달동네가 관광지가 된 사연은 ...

지역문화자원 활용한 도심재생 부산·대구·창원 사례 답사

김남덕 (본지 상임위원)



1

창동예술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은 2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안에 위치한 창동통합상가는 한때 도심 상권의 중심이었으나 생활권의 분산 등으로 공동화돼 쇠퇴되기 시작했다.

원도심 상권 중심이던 창동상가를 재생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도심 밀착형 예술인촌인 ‘창동예술촌’ 사업이다.

상가 내 비어 있는 점포를 예술과 접목해 시민들이 찾는 문화적인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도심을 재생시킨다는 것이 사업내용이다.

시행 1년6개월이 지난 예술촌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인 70여 명이 입주해 창작과 시민체험, 작품판매 등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보성 창동통합상가 상인회장은 “사업 시행 전보다 매출이 2배 가량 늘었다”며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경험하기 위해 시장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점포 중간중간 전시공간을 마련해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갤러리도 운영 중이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포장판매 점포나 커피 전문점 등이 없어 고객 방문율을 높이는 방법 개선이 아쉽다. 창동예술촌은 현재 점포의 임대료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은 작가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2

- 1 쇠락의 길을 걷던 창동통합상가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창동예술촌으로 변모,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2 스터디 투어 참가자들이 시장 내 예술인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 3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인 노산동 누림마을에서 사업 진행과정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 4 계단식 집단거주지역인 부산 감천마을 모습



노산동 누림마을 공동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 누림마을 공동체는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지 재생은 주민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실행하고 있다. 마산문화관의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스토리가 있는 벽화길, 녹색기술을 적용한 노후불량주택 개선, 담장 및 지붕 보수, 벽지 바르기, 전기 작업, 문풍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화훼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천연비누 만들기, 감국차, 개뽕썩 차 등 꽃 관련 상품을 개발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은 한국전쟁 당시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산비탈을 따라 설치된 집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와 함께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다. 천마산과 아미산에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독특한 계단식 집단주거형태는 독특한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뒷집을 가리지 않게 지어진 마을은 현대의 도시인들에게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는 우리 민족의 원형과 전통을 보존하는 마을이다.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에서도 소문난 대표적 달동네다. 한때 3만 명이 머물던 마을 인구는 현재 9,600여 명 정도이며 그중 노인인구가 2,000명 정도로 공동화되고 있다.

1950~60년대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초대작가인 고 최민식 작품에 등장하는 마을은 2009년 동서대 이명희 교수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연간 1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마을은 33㎡ 미만의 4,400여 채로 구성돼 있으며 빈집은 200여가구이다. 구청은 빈집 임대료를 지원하며 입주





한 주민, 문화예술인은 인테리어를 비롯한 공과금을 부담해 운영된다.

현재 애니메이션, 흙공예, 신발, 염색공예 등 5개 예술 분야의 작가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김재영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봉사단장은 “아트숍, 감내 맛집, 카페 등이 마을기업 형태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대구 근대문화골목

보통 사람들 기억 속에 대구는 사과 미인의 도시로 각인돼 있었다.

요즘 대구는 활기차고 역동적이다. 과거 그냥 스쳐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대구의 근현대 역사에 매료돼 골목길 여행에 나서고 있다.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과 체험학습에 나선 학생들이 대구의 근현대사를 다리를 팔아가며 배우고 있다. 대구 중구의 ‘근대골목’ 사업은 근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옛 도심을 잘 보존하여 도심의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도심재생 및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 되고 있다.

근대로의 여행상품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골목길로 연결해 한 해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근대의 역사문화 유산이 역사를 넘어 대구 경제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골목문화탐’을





사진설명

- 5** 부산 감천마을 주민들이 판자로 만든 대형물고기 설치 미술
- 6** 1910년대 지어진 선교사들이 살던 주택. 대구직할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 7** 1892년 활동하던 미국선교사들이 지은 주택으로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내부는 그 당시 사용하던 의료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 8** 일제 강점기 저항시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주인공 이상화 시인의 생가로 이어진 골목길. 대구의 골목길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상품이다.

운영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으며 '도심재생문화재단'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여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근대골목투어는 도시대학을 열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해 지역 참여를 유도해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개 700m에서 시작한 코스는 5개 10km로 늘어났으며 사라진 골목길 사업을 통해 끊어진 1,000여 개의 길을 잇고 잊힌 골목길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다. 동성로와 서성로 일대 한옥 수십 채를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과 한옥촌으로 리모델링 중이다. 춘천은 소양로 여인숙 골목길, 약사리 골목, 교동 골목, 기와집 골목 등 다양한 골목길과 미군부대, 양키시장, 당간지주와 7층석탑 등 대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관광자원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지금 이 (구)캠ป์페이지 부지 활용과 더불어 춘천이 가진 고유한 구슬을 잘 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양강댐 준공 40주년

과거 · 현재 · 미래

김희은 (본지 상임위원)

1967년 4월 착공, 1973년 10월 15일 준공

소양강댐은 경부고속도로(1970), 서울지하철 1호선(1974)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긴 ‘3대 국책 사업’ 중 하나였다. 총 공사비 290억원이 투입된 소양강댐은 1967년 4월에 착공, 연인원 617만 명이 6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1973년 10월 15일에 준공됐다.

원래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설계됐으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비용 절감과 안전성에 좋다고 하며 흙과 모래, 자갈로 만들 것을 제안해 동양 최대 규모의 사력댐으로 완성됐다.

높이 123m, 제방 길이 530m, 29억 톤의 물이 만들어내는 수면 넓이(저수 면적)만 70km², 유역 넓이는 2703km²에 달하는 소양강댐은 7억7천만 톤의 홍수 조절 능력과 12억 톤의 농공업용수공급 능력과 시간 당 최고 20만 kW 전력 생산이 가능한 다목적 댐이다.

소양강댐 건설을 두고 수자원 확보, 홍수 조절, 전력 생산을 통해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춘천도심 개발에 불 댕겼지만 많은 피해 발생하기도

소양강댐이 춘천지역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을까? 1984년 춘천시에서 펴낸 ‘춘천지’에는 “춘천댐(65), 의암댐(67), 소양강댐 공사로 막대한 수물 보상금이 쏟아져 나오고 댐 공사 경기가 춘천시내 상가 경기에 파급돼 육림극장 넘어 논밭이 들성하고 빈촌이 늘려있던 8호광장 일대의 부도심 건설을 재촉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 소양강댐이 들어서면서 춘천, 양구, 인제 등 3개 시·군, 6개 면, 38개 리에서 50.21km²에 달하는 지역이 수몰됐고 1만8546명(3153가구)가 대대로 살아온 고향 마을을 떠나야 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자료를 보면 당시 수몰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9%가 논밭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농경지 수몰 피해 외에도 댐이 들어서면서 교통이 불편해졌다. 댐 건

설 전에는 춘천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양구였지만 소양강댐이 생기고 양구는 ‘육지 속의 섬’이 돼 버렸고, 춘천에서 양구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다.

또한 수몰 전에 비해 평균 5배로 늘어난 안개 일수로 인해 호흡기 질환 위험성이 커졌고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과수나 농작물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강변에 펼쳐져 있던 백사장과 들판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잃게 된 것도 아쉬운 일이다.

“남북통일이 돼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

댐이 건설되면서 춘천시 동면 7개리, 북산면 14개리가 수몰됐다. 성원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최양대(67) 씨는 “그 당시 땅 한 평 없고 판잣집 한 채만 있던 우리 집은 새로 집 지으려고 준비해 놓은 기둥들 값까지 쳐서 받은 이주비로 어머니가 식사동에 땅 40평을 사서 집을 지었다”며 “보상비로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농사지는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그 외 장사나 다른 것 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망했다”고 했다.

수몰되기 전, 북산면 내평리는 춘천시 25개 읍면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해 춘천시 면적의 18.3%를 차지했다. 인구도 9,000여 명으로 춘천에서 춘천초등학교 다음에 내평 초등학교가 두 번째로 개교할 정도였다.

그러나 댐 건설로 대부분의 옥토가 수몰돼,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현재 내평리는 3개 반에 9가구 12명의 주민이 사는 초미니 마을이 되었다.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18살에 내평리를 떠난 권현복(63) 씨는 “수몰되기 전 우리 고향은 물을 따라 한 쪽에는 바위절벽, 다른 한쪽엔 넓은 모래벌이 펼쳐지는 절경이 양구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곳이었다”며 “남북통일이 돼도 우리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됐다”고 했다.

소양강댐이 준공된 지 어느덧 40년이다.

댐 건설로 수도권 상수원과 홍수 조절, 농공업용수 공급, 전력 생산 등으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수몰지역과 주민들의 피해, 수중 생태계 파괴,

소양강댐 물값을 둘러싼 갈등 등 부정적인 요소도 만만치 않다.

이런 면면을 살펴보면서 시대 변화의 속도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소양강댐의 모습도 담아보았다.

흙탕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및 생태계 파괴

이상 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대량의 흙탕물이 소양강댐에 유입되고 있다. 정부와 도내 지자체가 북한강 상류 흙탕물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흙탕물 유입이 반복되면서 수중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 수환경 교란에 의한 수생태 영향평가’에 따르면 집중호우 전·후 소양호의 어종 변동변화를 조사한 결과 참갈겨니, 줄납자루 등 9종의 어류가 채집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어류 현존량도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생물 서식환경이 크게 악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파괴와 함께 식수원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토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받 기반 정비사업, 고랭지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산림복원 사업 등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흙탕물 유입 방지를 위해 댐 중간층에 위치한 흙탕물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 취수설비 공사를 하고 있다. 2015년에 준공될 선택취수설비는 흙탕물이 형성돼 있지 않은 수층에서 선택적으로 취수를 할 수 있는 장점과 댐 중간층에 위치한 흙탕물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주하는 주민을 위한 송별회



수몰 전 내평리 전경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와의 물값 논쟁

95년 장학지구에서 현재의 소양강댐 하류 지점으로 취수장을 옮긴 뒤부터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물값 논쟁이 시작됐고, 갈등은 법적인 소송으로 번졌다.

그러나 춘천시는 소양강댐 물값 지불 요구에 대해 ▲댐 건설에 따른 생태환경 훼손, 교통 불편 가중, 지역개발 제한 등 시민정서가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댐 건설 이전 하루 69만9천t을 사용하던 수준에서 6만t으로 급격히 줄었고 ▲저수지가 아닌 자연 방류하고 있는 하류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물값을 내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또 다시 2011년 1995년 이후 밀린 물값 및 가산금 137억 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춘천시에 보내왔다.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소 50억 원이 넘는 물값을 물어야 하기에 납부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후 물값 논쟁은 ‘내느냐 마느냐’에서 ‘얼마냐’로 넘어갔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하류에서 취수하는 하루 평균 7만5천t에서 댐 건설 이전에 취수한 2만t을 뺀 5만5천t에 대한 물값 9억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상정했다. 그러나 춘천시의회는 당시 수자원공사와 수리권 배분문제, 대규모 댐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정서 등과 맞지 않는다고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물값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관광자원·에너지 자원으로 진화하는 소양강댐

고속도로와 전철 등 교통편이 크게 개선되면서 한동안 소외됐던 소양강댐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소양강댐 관리단의 박성순 단장은 “그동안 폐쇄됐던 댐 정상 개방, 미니콘서트 개최, 산책로·생태공원 조성, 벚꽃길 걷기행사 등 문화·휴식 공간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소양강댐 준공 40주년을 맞아 ‘승천하는 용’을 모티브로 대대적인 야간 조명 사업도 펼치게 된다. 주간뿐 아니라 야간 볼거리를 강화, 관광 매력지수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한편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2013국제물포럼을 통해 “여름철 소양강댐의 물은 6도 이하로 대기의 온도와 20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 온도차를 활용, 지역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고 했다.

온도차를 이용한 사업들로는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시설 농업, 대형 저온 유통센터 등이 있다. 또 소양강댐으로 생긴 소양호의 오지마을이나 뱃길, 옛길 등을 춘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댐사면 - 용너미고개 걷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사랑의 작은 콘서트

사북면 가일리 가는 길 좋아져

진입도로 개선공사 마무리 ... 대형 차량도 통행 가능

사북면 가일리 가는 길이 좋아졌다. 춘천시는 이 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지난 6월 착공, 최근 마무리했다. 2억원을 들여 고갯길 선형을 펴면서 이제는 대형차량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일리 진입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굽이가 심해 소형차량만 간신히 운행할 수 있었다. 겨울철에 눈길이면 소형차 운행도 위험해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가일리는 춘천호 건너 신포리를 이어주던 행정선박마저 2009년 끊기고 시내버스로 들어오지 않아 교통 오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고갯마루 굽이를 완만하게 하고 폭도 넓혔다. 공사가 마무리되자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다.

수십 년간 겪어 온 통행 불편이 풀렸기 때문이다.

김경호 가일리 이장은 “주민들의 오랜 소원이 풀려 너

무 기쁘다”며 “하루빨리 시내버스가 운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37가구 60여 명의 주민은 자가용이나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송암리까지 나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도로과 ☎250-3159〉



눈 오는 겨울엔 수시로 교통이 끊겼던 가일리 도로가 새 단장됐다

신축 온의교연말 임시통행



상공에서 바라 본 온의교 공사현장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온의교가 빠르면 연말부터 임시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착공된 온의교 신축공사는 약사재정비사업, 온의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 기존 교량이 철거된 자리에 폭 20m(4차로), 길이 100m의 다리를 새로 놓는 것이다. 사업비는 70억 원이다.

준공 시기는 내년 6월 중이지만 상판 공사를 마치는 대로 차량 통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온의동 닭갈비촌~퇴계동 홈플러스간 연내 개통



온의동 닭갈비촌~퇴계동 홈플러스간 도로공사가 한창이다

호반순환도로 퇴계동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할 온의동 닭갈비촌~퇴계동 홈플러스 간 도로공사가 한창이다. 확장, 개설 구간은 폭 25m 4차로 1.8km이다.

이중 온의동 닭갈비촌 구간은 이미 개설된 상태로 남은 공사 구간은 1.5km이다. 올 연말 내로 개통할 계획이다.

〈도로과 ☎250-3159〉

석사동 자동차부대 이전부지 도로개설 착공

4차도로 연내 개통 ... 석사사거리 애막골 ~ 후평동 구간 직선화

석사동 자동차부대(611경자대대) 이전부지 도로 개설 공사가 부대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착공됐다.

2009년부터 부대 이전을 추진한 지 4년만이다. 이번 도로 공사는 우석초등학교 뒤편 ~ 석사사거리 350m 구간, 4차로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석사사거리에서 애막골 방향은 국립춘천박물관 앞을 돌아 연결돼 있으나 공사가 끝나면 석사사거리 ~ 애막골 ~ 후평동 구간이 직선화돼 교통 흐름이 크게 좋아진다.

도심 속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효자2동, 석사사거리 일대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자대대는 지난해 이전을 마쳤다.

<도로과 ☎250-3159>



도로직선화를 위해 군부대 시설물이 철거되고 있다

포토뉴스

中 대련시 직원연수 “춘천시 배우러 왔습니다”



중국 대련시는 8월 25일부터 1주일간 춘천시에 직원연수단을 파견하여 춘천시의 전자정부, 도시건설, 복지정책, 기업유치, 관광개발 등을 벤치마킹하고 연수했다. 중국 연수단은 전자정부 연수 후 약사천 복원, 자전거도로현장 체험연수도 병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단장인 위시엔밍 임업국장 등 15명의 대련시 직원이 다녀갔다.

(사진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주수 부시장 주재로 열린 연수단 환영행사)

화장장 건립사업 감사원장 표창 수상



성용락(좌)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한현주 춘천시 복지2과장에게 수상하고 있다

도내 유일, 이웃 지자체와 모범적인 협력사례 인정받아

춘천시가 주민 기피시설인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웃 지자체인 홍천군과의 업무협조로 예산 절감과 함께 주민 편익을 증대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8월 28일 화장장 공동 건립을 추진한 춘천시 복지2과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와 개인 등 10곳에 대해 표창했다. 도내에서는 춘천시 복지2과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춘천시는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며 홍천군과 협력, 예산 100억원을 절감하고 양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한 모범사례로 뽑혔다.

동산면 군자리에 들어서는 화장장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춘천의 대표 향토축제 ‘소양강문화제’

- 9.26(목) 오후 7시 소양강처녀가요제(의암공원)
- 9.27(금) 오전 10시~17시 개회식, 체육대회(송암스포츠타운)
- 9.28(토)~29(일) 직장 대항 줄다리기, 윷놀이, 장기자랑(의암공원)

춘천시민 전통문화축제인 제35회 소양강문화제가 9월 26~29일 의암공원과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춘천시와 춘천문화원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예년보다 하루 늘어난 4일간 치뤄지며 문화예술단체들이 13개 분야 83종 목의 행사를 진행한다.

9월 26일 오후 7시 의암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소양강처녀가요제가 열리고, 개회식은 둘째 날인 27일 오전 10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다.

축하공연에 이어 오후 5시까지 시민 화합을 다지는 읍·면·동별 대항 체육경기가 펼쳐진다. 오후 5시부터는 브라운5번가 외 4곳에서 농악대 길놀이 공연이 있다.

28~29일 이틀간 의암공원 일원에서는 직장대항 줄다리기, 읍면동 대항 윷놀이, 장기자랑이 이어진다.

풍물,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줄타기, 댄스, 통기타, 밴드 등 공연과 한글백일장, 사생대회, 학생회화대회, 춘천사



랑 OX퀴즈 등 시민참여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도자기체험 등 23개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상설 운영되고 희귀우표, 소양강문화제 사진전, 춘천의 건축유산 사진전, 분재 전시회도 예정돼 있다.

〈문화체육과 ☎250-3060〉

재활용 쓰레기로 큰 돈 벌었다

9월 현재 8억여원 벌어 ... 수거량 크게 늘며 수익 급증

재활용 쓰레기가 큰 수익을 낳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각종 자원을 재생산하면서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신동면 혈동리 환경공원 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12억원.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 등 3천여톤을 팔아 얻은 수익금이다.

올해 9월 현재 페트병 플라스틱 등으로 8억여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종이팩, 폐건전지, 폐휴대전화 수거량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종이팩의 경우 크기 개수에 따라 휴지로 바뀌가는 상설 무인교환대가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27.6톤 수거에서 올 8월 현재는 20.4톤을 모았다. 폐건전지는 지난해 8톤을 수집했고, 올해는 이미 8톤을 넘어서었다. 폐휴대전화는 지난해 500여대에서 올해 800대로 늘었다.

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자리를 잡으면서 매립



되거나 방치되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이 크게 늘고 있다”며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물론 수익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청소행정과 ☎250-3125〉

학곡리 화물공영 차고지

10월부터 연말까지 임시 무료 개방

동내면 학곡리 화물공영차고지(8만여㎡)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차고지로 무료 개방된다. 공영 차고지는 내년 1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전 개방은 화물차의 주차 편의성을 홍보하고 도심 불법 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 사고 위험성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준공 전 무료 개방이어서 차고지 내 도난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 차주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춘천도시공사가 시행한 공영차고지에는 주차장(421면),



주유, 세차, 정비시설, 관리동이 들어선다.

시는 차고지 준공 시점에 맞춰 대형화물차의 도심 불법 주차 자제를 일정 기간 계도한 후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교통과 ☎250-3034, 춘천도시공사 ☎250-3891〉

춘천시체육회-춘천국유림관리소 협약 체결

숲 관련 각종 대회와 관리 서로 돕기로

춘천시체육회(회장 정태섭)와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9월 10일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국민의 숲 협약체결식’을 갖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춘천시체육회는 매년 ‘춘천시장배 전국MTB 강촌챌린저대회’와 ‘숲길달리기대회’를 강촌과 백양리 일대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대회 코스 중 일부 구간이 춘천국유림관리소의 관리하에 있어 매년 협의를 해야 하는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대회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대회 코스의 체계적인 관리, 숲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 함께 해요”

강원여성문인 5명으로 구성돼 5년 전부터 활동



“글도 쓰고 같이 노래도 해보자”

‘노래하는 아침하늘(회장 김계남)’은 5년 전 송병숙 회원이 “문학을 같이 하면서 노래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만들어졌다.

2004년 시로 등단한 송경애 회원은 ‘노래하는 아침하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작곡을 전공한 송 회원은 몇 년 전 KBS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에서 알토장을 했고, 현재 춘천 ‘청춘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다.

강원여성문학인회 이사이며 59세에 등단한 김계남 회원과 수필문학인회 소속인 박영희, 유옥상 회원.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됐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2시간 이상 노래연습을 하는데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혼나다 도망도 가면서 즐기는 이 시간을 통해 구르는 가랑잎에도 깔깔 웃어대던 10대 시절로 돌아간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회원을 ‘형님’이라 부르는 이들은 모두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문학과 음악이 조금 더 좋아해서 함께 하게 됐다”는 이들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강원 문인들 글,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싶어

글 쓰고 노래하는 이들은 강원여성문학인회의 여러 활동에 초청돼 공연하면서 그 분야에선 유명세를 타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 문인들의 글을 창작곡으로 만들어 부르는 일 또한 이들이 욕심내 하고 싶은 일이다. 지난 8월 3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있었던 공연에서 아동문학가 이화주님의 ‘꿈나라 갈 때’를 송경애 회원이 작곡해 관객들에게 선보여 신선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남성 세 명의 찬조출연으로 무대가 더욱 빛난 이날 공연은 세월을 이겨낸 곱고 부드러운 소리의 중창, 회원들의 시와 수필 낭송이 교차하며 진행돼 잔잔한 감동이 계속 이어졌다.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인 춘천 ‘청춘합창단’ 단원들이 객석에서 일어나 부르던 곱고 청아한 노랫소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 아름다운 합창에 이어 ‘노래하는 아침하늘’과 관객들이 모두 하나 되어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던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긴 잊지 못할 공연이었다.

김희은 (본지 상임위원)

만두와 꽃빵만으로 연매출 120억 이상 올리는 회사

직원 90% 강원도민 ... 풀무원,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제휴업체

퇴계농공단지에 위치한 세린 식품(주)은 만두와 꽃빵만을 제조해 연매출 12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회사다. 2001년 안산에서 시작된 세린식품은 2010년 4월 춘천으로 이전했다.

현재 연매출의 60%를 대기업 OEM(주문자 생산방식)을 통해, 나머지는 급식과 식자재 판매 등으로 올리고 있다. 현재 직원은 102명이며 이 중 90%는 강원도민이다. 장애인, 여성인력 뿐 아니라 새터민 등을 고용하고 각종 채용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으로 9월 5일 제2회 강원고용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회사 앞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매장

나이 서른에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 조병구 대표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조병구(42)대표는 대학 졸업 후 강원도의 건설회사에 입사했지만 돈을 벌 욕심으로 경기도 안산으로 떠났다.

처음 조 대표가 시작한 일은 1톤 냉동탑차에 만두를 싣고 식당에 납품하는 일이었다. 하루 20시간씩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면 청년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줬다.

그 당시 안산소상공인센터의 추천으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일이 되려고 했는지 대출심사를 온 사람이 양구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이었다. 조 대표의 고향이 양구인 것을 안 그 사람이 도와줘 기대했던 1,000만원 보다 많은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만두 파동으로 도산 위기

사업을 시작할 당시 조 대표의 나이는 서른이었다. 직원이 30명이 될 만큼 어느 정도 사업을 키워냈을 때 터진 것이 2004년 만두 파동이었다. ‘쓰레기 만두’라는 오명을 쓰고 만두업체는 공장 줄도산, 만두 사장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만두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러나 이미 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은 조 대표는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급여를 만만 받으면서도 자기 결을 떠나지 않는 직원들을 보며 조 대표는 만두 파동이 일어난 뒤 홈쇼핑 만두시장에 도전했다.

만두로는 처음 홈쇼핑 도전 ‘대박’

그 당시 홈쇼핑에서는 만두를 취급하지 않았다. 만두가 냉동식품이라 배달 과정에서 녹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매



조병구 대표



만두의
다양한 제품군

번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달 넘게 담당자를 설득했다.

세린식품의 ‘맑은 농가’란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 궁중요리가 한복선 씨와 손잡고 나온 것이 ‘한복선 궁중만두’였고 2004년 11월 4일 만두 품목으로는 처음 롯데홈쇼핑 방송을 탔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방송 20분 만에 1억 5,000만원 어치의 만두가 팔렸고, 그 해 롯데홈쇼핑 식품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겨울 내내 홈쇼핑을 통해 만두를 팔아 6개월 만에 은행 돈 30억 원을 다 갚았다.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기고, 매해 연매출 20% 성장

고비를 넘긴 세린식품은 2005년 만두공장자동화설비를 추진했다. 그 당시만 해도 자동화시설을 갖춘 만두공장이 거의 없을 때다. 오투기처럼 일어난 조 대표를 믿고 은행에서 또 다시 큰돈을 대출해 줬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찾아와 거의 8개월 동안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었다.

“어느 날 대표님이 절 부르시더니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들 힘든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그 때 제가 한 번 더 가자고 했어요. 만두 파동을 이겨낸 후 직원들에겐 어려워도 회사는 간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10년 전 입사해 춘천까지 조 대표를 따라온 박석태(42) 생산팀 부장의 말이다.

회사 앞 직영매장 운영, 순이익금 불우이웃 도와

다행히 2009년 풀무원과 손잡게 되면서 회사의 성장 속도에 탄력이 붙어 최근 몇 년 동안 연매출이 매해 20%씩 성장해 오고 있다.

‘맑은 농가’란 브랜드로 해협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풀무원, 자연드림,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제휴업체의 옷을 입고 판매되고 있다.

회사 앞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매장을 통해 제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매장에서 얻어지는 순이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춘천의 4가구, 양구 2가구의 매달 생활비로 쓰여지고 있다.

☎ 263-6056

김희은 (본지 상임위원)



소양강 물고기 7

대리모 선택한 납자루

송호복

(이학박사, 사단법인 한국민물고기연구소장)



묵납자루 암컷(멸종위기III급)

15종의 납자루 무리들

우리나라에는 약 15종의 납자루 무리들이 살고 있고, 한강수계에는 묵납자루를 비롯하여 줄납자루, 한강납줄개, 각시붕어 등 10여종의 납자루들이 살고 있다. 이놈들은 몸이 납작하고 체고가 높아 물살이 빠른 곳보다는 농수로나 연못, 호수 등과 같이 물살이 느리고 잔잔하게 고여 있는 물을 더 좋아한다. 그러고 보면 춘천 일대에 호수가 생겨나면서 납자루들에게는 서식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셈이 되었다. 의암호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물고기보다도 줄납자루가 월등히 많이 서식하고 있다.

조개 속에 알을 낳는 납자루

보통의 물고기들은 대부분 돌 틈이나 수초에 알을 낳는데 반해, 납자루들은 말조개나 대청이 같은 조개 속에 알을 낳는다. 산란철이 되면 수컷은 알 낳을 조개를 정해놓고 아름다운 혼인색으로 암컷을 유인한다. 그러면 산란관이 길게 발달한 암컷이 산란관을 이용하여 조개의 아가미 안에 알을 낳고 수컷이 정액을 방출해 알을 수정시킨다. 본의 아니게 납자루의 보모가 되어버린 조개 속에서 알이 부화하고 새끼가 성장을 하며 이윽고 헤엄을 칠 능력이 생기면 조개 밖으로 빠져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납자루들은 가시고기나 꺾지와 같이 둥지를 만들고 알과 새끼를 보살피는 힘든 수고 대신 조개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약은 번식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납자루를 이용하는 조개

모든 생물은 자신의 새끼들을 가능한 멀리까지 퍼트리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바닥에 몸을 묻고 숨구멍만 내놓고 살아가는 이동성이 별로 없는 조개는 새끼들을 멀리까지 퍼트리는 데 매우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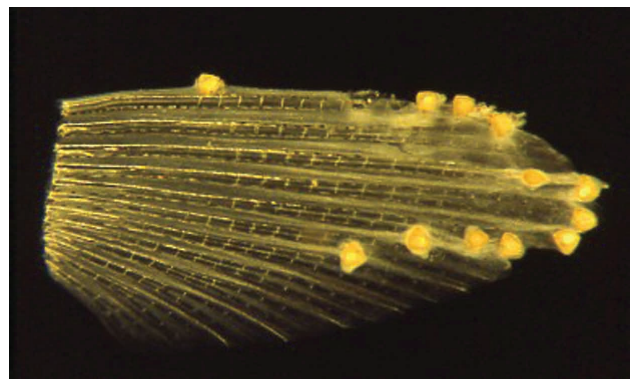
하다. 이 무뚝뚝하고 둔해 보이는 조개들도 자손을 효과적으로 퍼트릴 궁리를 수없이 했을 것이다. “아! 산란기만 되면 나를 찾아와 귀찮게 구는 납자루를 이용해 보자.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치니까 멀리까지 이동이 가능하잖아. 알을 낳기 위해 찾아온 납자루들에게 내 새끼들을 붙여서 떠나보내는 거야.” 조개는 물려든 납자루들을 향해 작은 유생들을 뱉어 물고기 몸에 부착시키고, 물고기에 붙어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란 어린 조개들은 어미 조개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곳에 정착하여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기생일까? 공생일까?

조개로서는 자기 몸속에 물고기 알이 들어오니 싫고 걸리적 거릴 뿐이므로 틈만 나면 알을 밖으로 배출하려고 애를 쓴다. 물고기는 조개의 유생이 몸에 붙어 상처를 내고 양분을 뺏아가므로 두 종 간의 관계는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기생관계이다. 그러나 생물들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생하는 자와 기생당하는 자, 설사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사이라 할지라도, 생물의 세계에서는 명백하게 적이란 없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돕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인 것이다.



조개 아가미속의 납자루 새끼



물고기의 지느러미에 붙은 어린조개

김남덕
(본지 상임위원)

내평리 굴참나무



내평리 굴참나무 만나러 가는 길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더위가 한풀 꺾였다. 차창 밖으로 내민 손에 닿는 바람이 제법 차다. 북산면사무소를 지나 내평길로 들어섰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산골마을의 논은 벼가 노랑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도시보다 농촌이 더 빨리 오는가 보다. 구불 구불한 고갯길을 넘어간다. 여름내 내린 비 때문인지 키가 훌쩍 자란 마타리가 길가에서 하늘 거리며 인사한다. 닭장 나온 닭들이 도로 위를 유유자적 걸으며 마실을 다닌다. 내비게이션에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 952번지를 찍고 달리는 동안 만나는 풍경이다.

마을의 수호신

바람이 분다. 초록빛과 흰빛의 굴참나무 잎이 번갈아 가며 물결치듯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다.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장타원형 또는 타원상 피침형으로 가장자리에 바늘 모양의 톱니가 있으며 앞 뒷면에 별 모양의 털이 뺨뺨이 달려 흰빛이 많이 돈다. 9~16쌍의 측맥이 있고 잎자루는 길이 1~3cm 정도이다. 암수한그루로 5월에 잎과 함께 꽃이 피고 열매는 10월에 맺는다. 옛날에는 나무 주변에 서당이 있었다. 글 읽는 소리를 듣던 나무는 지금은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엔진 소릴 듣는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9월9일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한다. 제사를 앞두고 닭고기, 개고기를 피하는 등 부정 탈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초상집 문상도 가질 않는다. 이 나무는 몇 해 전까지 잎도 드문드문 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영양제를 투여하고 나뭇 가지를 정리하는 등 정성을 들여 다행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굴피집 만드는 재료

굴참나무는 강원도에선 굴피집 만드는 재료로 잘 알려져 있다. 주택 지붕의 재료는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한다. 보

통 벗집을 사용했으나 논이 많지 않던 강원도는 억새, 굴피(굴참나무 표피)를 잘라 지붕에 올렸다. 굴참나무 표피가 기와를 대신해 지붕 역할을 해왔다.

굴참나무는 나무 표피에 골이 나 있다. 골이 나 있는 참나무라 하여 굴참나무라 부르던 것이 굴참나무가 됐다.

굴참나무는 표피의 코르크가 잘 발달돼 있다. 손톱으로 누르면 폭신함을 느낄 정도로 두껍고 부드럽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굴참나무는 강릉 옥계면 군락(천연기념물 제461호), 울진군 수산리(천연기념물 제96호), 서울 신림(천연기념물 제271호) 등이 등록돼 보호를 받고 있다.

동내면 사암2리 수살대



면면이 이어 온 숫대 신앙 그대로 전승

수해 없는 한 해, 풍년 염원

그 무덥던 여름도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원창고 개에서 바라 본 동내면 들은 넉넉해 보입니다. 벼 대궁은 아직 푸른 기운을 털어내지 못했으되 이삭은 제법 포실합니다. 올 여름 수해를 겪었지만 풍년이었으면 합니다.

사암리는 동내면 한 가운데 있습니다. 뒤로는 대룡산이, 앞으로는 금병산과 거기서 이어진 안마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른 벌이 사암리입니다. 오늘 찾아가는 곳은 사암2리입니다. 춘천IC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진 마을이죠.

대룡산 자락을 따라 개울이 흐릅니다. 군데군데 암

반이 있는 걸 보면 자연 하천입니다.

마을길을 따라가다 보면 개울 편편한 곳에 숫대와 장승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수살대라고 부릅니다.

수살대는 숫대입니다. 곧고 긴 나무 대에 물새 형상을 올린 그 숫대 말입니다.

숫대는 곳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강릉에서는 진포배기, 또 다른 곳에서는 별신대라고도 하지요. 그 명칭 뒤에 제(祭)나 굿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숫대는 민속 신앙물인 것이지요. 물론 사암2리에서도 정월 대보름에 거리제를 합니다.

매년 거리제로 삼재(三災) 액막이 기원

장승과 솟대는 요즘 관광 오브제로 많이 재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춘천의 경우 솟대 문화가 마을 단위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는 곳은 드뭅니다.

구한 말 사진을 보면 솟대는 장승과 짝으로 있습니다. 둘의 기능이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점은 액막이입니다. 삼재(三災)라고 하지요.

나쁜 기운, 즉 물, 불, 바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민간의 제의물인 것이죠. 풍년을 기원하는 뜻도 있지요. 장대에 끼워진 물새는 흔히 오리로 생각합니다. 오리는 물과 친숙한 날짐승이니 수해나 가뭄을 막는 영험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는 조선후기 민화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민화는 한자를 쪼개거나 동음이의(同音異義)를 활용해 길상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새우를 볼까요. 수염이 많으니 한자로, 바다 늑은이, 즉 해노(海老)라고도 했습니다. 해노는 오래산다는 해로(偕老)와 동음입니다. 장수의 뜻으로 새우를 그림에 넣었던 것이죠.

오리의 한자는 압(鴨)입니다. 글자를 쪼개면 새 중에 으뜸입니다. 민화의 오리와 솟대에는 그렇게 과거 급제, 그것도 장원(甲)급제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솟대와 태백동... 춘천의 '神市'일지도

사암2리의 수살대는 수살(水煞)을 막아달라는 동민들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지찬주 사암2리 이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이 대룡산 물이 내리는 곳에 있으니, 개울이 넘쳐 논밭을 휩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솟대가 서 있는 지명을 수살배기라고 했어요. 매년 솟대와 장승을 세우고 동제를 올린 지 오래 됐습니다”

장승은 땅의 액 막음을, 솟대는 하늘로부터 오는 액을 막아 준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에 태백동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수살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삼국유사에 태백은 신시(神市)를 뜻합니다.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곳이죠. 그 상징물이 우리나라 신화에서는 신단수입니다.

곳에서 신은 나무(神木)를 통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를 솟대나 신목으로 씁니다만, 북유럽 신화에서는 물푸레나무(위그드라실)가 등장합니다. 천상과 인간, 지하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수(世界樹) 말입니다.

어쩌면 사암2리 수살대는 신과 인간이 원초적으로 감응했던, 춘천의 신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사꽃 마을로 유명한 사암2리가 오리의 영험을 받아 전통과 풍요로 새농촌을 이끄는, 으뜸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봄내 편집실]

기생

“문화 전승의 징검돌을 놓다”



평양권번이 운영하던 평양기생학교

봉건시대 마지막 예인...신문화 스타

무일푼의 신사가 요릿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 ‘빈대떡 신사’는 1943년 노래다. 요릿집의 꽃은 단연 기생이었다. 말하는 꽃 ‘解語花’. 기생은 봉건시대 유습이자 신문화의 선봉이었다.

일제시대, 요릿집은 연희(놀이) 문화의 중심지였다. 경성은 물론, 개항지, 중소도시, 시골까지 청사등롱을 밝혔다. 한국, 일본, 중국 요릿집... 나중에는 서양의 카페로까지, 다국적 문화가 유통됐다. 당시 향응 ‘산업’은 기생문화에 의해 창출됐다. 만사가 요릿집에서 이뤄졌다. 그만큼 기생이 생산되고 소비됐다. 한편으로는 기생에 빠져 패가 망신하거나 도주하는 사건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부모가 준 몸을 팔아 부모를 먹여 살리는 기생의 삶을 애절히 생각하면서, 고급 노리개로 취하면서도, 가장 악한 물건이라 손가락질했던 이율배반의 시대.

상거례를 하려도 해도 기생, 학교 입학하러 해도 기생...취직 운동에도 기생, 학생 송별회에도 기생, 꽃 피었다고 기생, 달구경하자고 기생, 사실사철 기생이니 이 사회가 시들어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잡지 ‘동광’ 28호, 1931)



관기(官妓)

천민의 몸, 양반의 머리 “예악의 전승자”

식민의 무력감, 분노, 위세, 이권...은 나라가 기생놀음에 돌아났다. 조선의 도청소재지 중 경성에서 제일 가까운 춘천. 1920년대 한 잡지 기사를 보자. ‘각 도청 소재지 중 발전 못 되기는 춘천이 제일이다. 그런데 다만 화류계는 잘 발전되었다. 공창(公娼)은 그만두고 기생만도 30여 명이 되어...’(개벽42호, 1923). 기생집을 출입하는 학생들의 풍기문란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여기서 ‘공창’은 노는 계집, 논다니다. 공창은 일본에서 유입됐다. 개항과 함께 일본 유녀(遊女)가 떼로 들어왔다.



춘천공회당 – 지금의 문예회관 기능을 했다.
명동문화극장 뒷편이 있었다. 강연, 집회, 공연장으로 쓰였다.

〈국립춘천박물관〉

유곽이다. 1920년대 이미 춘천에 집창촌이 들어선 것이다. 반면 기생(妓生)은 원래 예기(藝妓)이다. 기생에도 등급이 있었다. 궁중 관기, 그 중에서도 옥당기생이라 불리던 의녀(醫女, 약방기생), 침선비(針線婢, 상방기생)가 일패 기생, 그 보다 기예가 못한 관기가 이패 기생, 여기까지가 진짜 기생이다. 잡가 정도의 소리와 함께 해웃값(몸값)을 받았던 치를 3패 기생이라 했다.

기생은 봉건시대, 천민의 몸이나 양반의 머리를 가졌던 특수 신분 층이다. 여덟 부류의 천민 중 하나이면서도 춤, 노래 뿐 아니라 시, 서, 화를 갖춘 예술인이었다. 악공, 악생과 함께 조선 예악의 전승자였다.

18세기, 유흥문화의 확산과 함께 여항(閭巷)에서 생계를 꾸리기도 했으나 법도와 격식은 근대까지 엄격하게 이어졌다.

왕조 멸망과 함께 기생 권변으로 명맥

조선기생의 삶은 왕조와 함께 했다. 1908년, 기생에 대한 관리권은 궁(宮)에서 일제 경시청으로 넘어갔다.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같은 해 기생조합이 처음 만들어지고 1909년 조선식 요릿집 ‘명월관’이 문을 열었다. 기생조합은 그후 권변으로 바뀌었다. 권변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연예기획사였다. 기생을 양성해 요릿집에 제공하고 놀음 값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식이었다. 한성권변을 시작으로 조선 팔도에 권변이 퍼졌다.

다시 춘천.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요릿집은 대흥관이었다. 지금의 조양동 어느 어름으로 추측된다. 1937년 기사, ‘춘천 요리옥 대흥관, 금강관 기타 11개소 요리옥에서는 양일에 걸쳐 기생연주회를 춘천공회당에서 개최하여 양일 동안에 수입되는 것을 국방헌금으로 하기로 하고 요새 매일같이 연습에 노력한다고 하는 바...’(동아일보, 1937년 9월 15일)

춘천의 기생은 경성을 비롯한 다른 지역 권변에서 유입된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 관아에 예술된 관기(官妓)가 있었다. 17세기 춘천읍지. 주탕 19명, 의녀 4명, 악공, 3명, 악생 2명. 주탕은 관가에 소속된, 얼굴이 반반한 노(奴)다. 악공과 악생이 있었으니 의녀는 여자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생역할도 함께 했던 것이다.

연예인 원조...음악, 영화, 연극계로 진출

당시 춘천기생은 자체 명맥과 함께, 큰 도시 권변 출신이 섞이지 않았을까 싶다. 3패 기생, 유랑 놀이패 출신 창기(娼妓)가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기사를 보면, 수해구제 같은 기생들의 자선연회 소식이 종종 등장한다. 사회 참여의 뜻도 있겠으나 어떤 면에서도 기생의 솜씨를 일반에 선보이는 마케팅 수단이 되기도 했다.

기생들은 1920년대 축음기 도입을 기점으로 가수, 배우, 혹은 유학을 통해 신문화의 기수로 떠오른다. 단발머리, 파마, 하이칼라로 패션을 선도했다.

그러면, 춘천에도 권변이 있었을까. 춘천의 권변 설립은 경춘철도와 관계가 있다. 경춘선이 개통된 1939년 이듬해 권변 조직 소식이 들린다. ‘춘천은 작년에 경춘철도 개통을 본 다음 외래객이 빈번함을 물론 여러 가지로 권변에 실현을 보게 되었는데 춘천에는 현재 40여명이 있으며 동 권변은 3만, 4만원 정도의 주식회사로 되리라 한다.’(동아일보, 1940년 5월 15일). 2010년 복선전철 개통 효과와 같다.

조선기생의 명맥은 1948년 당국의 권변 폐쇄에 따라 사실상 끊긴다. 길가의 버드나무이고, 울 밑의 꽃(路柳 牆花)이었지만 그들로 인해 우리 소리와 춤사위가 이어졌다.

[봄내 편집실]

‘함께 뛰실래요 희망 달리기?’

9월 28일 공지천 푸른쉼터에서 출발

‘We Start 춘천마을’이 주관하는 ‘7월의 크리스마스 Run For We Start’ 희망 달리기 캠페인이 9월 28일 공지천 등지에서 열린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진정한 권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는 자리다.

오전 9시 고등학교 댄스동아리가 흥겨운 댄스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9시 30분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희망 달리가 펼쳐진다. 공지천 푸른쉼터에서 출발, 소양호를 끼고 도는 자전거도로를 따라 달려 다시 공지천까지 약 5Km를 돌아오는 행사다.

이 자리엔 We Start 춘천마을 아동 50여 명도 함께해 의미를 더한다. 가족에게 희망엽서 쓰기, 자작나무에 희망메시지 써서 매달기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사전접수나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오곡이 무르



익는 풍성한 가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일일 산타가 되어보자.

☎ 263-2850

명예시민기자 한영숙

“이산가족 자유롭게 만났으면”

상봉기원 사랑나누기 한마당 열려

(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강원도본부는 지난 3일 국립 춘천박물관 강당에서 ‘2013 이산가족 자유 상봉 기원 사랑나누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은 1992년 ‘우리민족 서로 만나기 모임’이라는 단체로 출범했

으며 민족통일운동, 통일예술활동,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등을 전개하는 민족통일운동 단체다.

송낙환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회장은 “그간 이산가족 상봉은 제한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상봉 후 소식을 알 수 없어 그리움만 남았다. 이번 행사는 이산가족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리고 자유 상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모집한 사진, 영상, 제안, 수필 등에 대한 시상식과 자유상봉기원문 발표에 이어 평양꽃바다 예술단의 노래, 손풍금, 장고춤 공연을 통해 이산가족의 그리움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동수(79·석사동)씨는 “매번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북에 있는 형님이 많이 보고 싶었는데 나의 외로운 마음을 풀어주는 행사가 좋았다”고 했다.

명예시민기자 함해인



“셀프니까 이발비는 오천원”

석사동 쌍다리이용소 운영하는 성수복 씨

석사동 삼익1차아파트 상가 1층에서 쌍다리이용소란 간판을 내걸고 14년째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는 성수복(58) 씨 가게는 모든 것이 셀프로 운영되고 있다.

이발이 끝난 손님은 직접 머리를 감고, 말리고 이발비도 직접 알아서 척척 내고 가기 때문이다. 쌍다리이용소의 한 단골 손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발비를 5,000원만 받으니까 그냥 내가 머리를 감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했다.

20대 초반 시청 구내 이발소에서 처음 이발 기술을 배운 성 씨는 당시 이발비가 300원이었다며 웃었다.

다른 이용소들이 매주 화요일 쉬는 것과 달리 매주 일요일 이용소를 쉬는 이유가 처음 시청 구내 이발소에서 일할 때 공무원들이 쉬는 날 같이 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전엔 어린 남자애들까지 다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을 깎았는데 요즘은 엄마 손에 이끌려 미장원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춘천에서 이발소가 절반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긴 하죠.”

40년 전 서투른 손짓으로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깎아주던 성수복 씨. 이제 세월의 더께 속에 익숙한 솜씨를 자랑하는데, 그의 늘어난 솜씨만큼 손님들도 늘어났으면 좋겠다.

명예시민기자 황순옥



‘깍(喫)해야 한판’ 펼쳐고 “얼췌 잘 한다”

수변공원에서 강원민족예술 한마당잔치 펼쳐

지난 9월5일부터 3일간 공지천 수변공원에서는 (사)강원민예총이 주최하고 강원민족예술한마당위원회가 주관하는 ‘깍(喫:먹고 마시고 즐길 깍)해야 한판’ 민족예술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첫날 오후7시 농악의 지신밟기에 이어 무대에 밝혀진 100여 개의 촛불 앞에 관객들이 줄지어 나가 정화수를 올리고 의례 굿이 진행된 다음 관객들이 다시 나가 소지를 올리며 대자연에 소원을 비는 의례절차로 시작되었다. 막걸리와 강냉이가 관객들에게 푸짐하게 제공되었고 풍물명인전에 이어 출연진과 관객들이 한데 어울리는 난장판이 밤늦도록 펼쳐졌다.

6일 오후 4시부터는 춘천역광장 거리 공연, 전통사물놀이, 탈춤, 강강술래,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상처에서 희망으로 승화하는 창작 풍물판굿 ‘바람을 타고 나는 새야’가 공연되었다.

마지막 날인 7일 오후2시부터는 시민참여 한마당, 풍물시장 거리공연, 길놀이, 농요, 북청사자놀이, 춘천의 풍물



공연으로 경로당 풍물패, 뒤흘루 농악보존회, 춘주농악이 출연했고, 천하의 상식꾼 나금추의 설장고를 비롯한 판굿, 놀이공연으로 이어지면서 강원도의 맛으로 즐기는 ‘만깍’ 한판마당이 펼쳐졌다.

전통 풍물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연출, 출연자들의 노고에 비해 관객 수가 적은 건 무슨 까닭일까?

명예시민기자 박광택

이주여성들과 문학을 얘기하다

빛글문학, 뜻깊은 행사 ... 10월 19~26일 시화전

일상의 언어를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5년째 매월 함께 모여 시를 나누고 수필과 시조 등 창작활동을 하는 ‘빛글문학(회장 김빈)’

구성원은 3명을 제외하면 가정주부로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문학 감성을 교감하는 빛글문학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과 함께 지난 8월 15일 원주의 박경리문학공원 등을 탐방하는 문학나눔을 가졌다.

빛글문학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문학나눔에는 캄보디아, 태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온 8명의 이주여성이 참가했다. 회원들은 이들과 함께 박경리 소설가의 집필실과 문학공원, 토지문화관 등을 찾아 작가의 문학혼을 공유하며 주부라는 공통된 주제로 결혼생활 등 삶의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문학나눔에는 이영춘 시인이 참여해 이주여성과 회



원들이 함께 창작이론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결혼 5년 차인 오우소우이안(태국 출신) 씨는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빛글문학은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시와 수필, 시조 등 회원들이 그동안 일상에서 빛은 곱삭은 작품으로 공지천에서 시화전을 갖는다.

명예시민기자 이종현

“리코더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창단 첫해부터 전국대회 휩쓴 신남초 리코더합주단

칠전동에 위치한 신남초등학교(교장 이호청) 리코더합주단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3~6학년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신남초등학교 리코더합주단은 교내 6개 동아리 중 하나다.

리코더를 전공하고 리코더지도 우수교사 표창까지 받은 최소영 교사가 2010년 4월에 부임하면서 리코더합주단을 창단했다. 첫해 전국 리코더콩쿠르에서 금상을 차지하더니 2011년과 2012년 전국리코더콩쿠르에서 연이어 대상을 차지했고, 올해 제30회 전국리코더콩쿠르에서도 합주, 독주, 중주 부문 금상을 거머쥐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다.

취미로 하는 동아리 활동이다 보니 점심 시간과 방과 후에 틈틈이 하는 연습시간은 늘 부족했다. 하지만 한 가지씩 배워 동요가 아닌 멋진 클래식을 연주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상도 타고 각종 행사나 음악회에 초청되면서 아이들은 큰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

지난 8월 22일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대만의 스싱초등학교, 관시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국&대만 글로벌 프렌



드십 리코더 연주회’도 펼쳤다. 신남초교 졸업생 20명도 후배들과 함께 한 따뜻한 자리였다. 이날 양국 학생들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비탈디의 사계’ 등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보였고 300여 명의 관중들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청소년들의 멋진 하모니에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최소영 지도교사는 “리코더 연주는 다양한 악기가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희 합주단 출신 중엔 리코더 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생겼습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명예시민기자 한영숙

한샘고 화장품응용과학과

나눔으로 인성 쌓는 학생들

복지센터 어르신들 피부마사지 등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봉사활동

춘천 한샘고 화장품응용과학과 학생들은 하루를 줄넘기와 박수치기로 독특하게 시작한다. 아침 등교와 함께 줄넘기로 체력을 단련하고 매 수업 시간에는 시작과 동시에 30초에서 1분간 박수치기를 친다.

희망자 전원 취업과 자격증을 취득함은 물론 학생들은 나눔 실천으로 더 큰 눈길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나눔은 지난해 6월부터 굿네이버스와 연계해 해외 아동 돕기 행사다. 개인당 용돈을 아껴 1,000원에서 5,000원을 매월 기부해 학급별로 1명씩 6명을 후원하고 있다.

학과 교사 후원 2명을 포함하면 매월 8명에게 개인당 3만씩 24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두 번째 나눔은 독거노인 연탄 후원행사다.

지난해 춘천연탄은행과 연계해 연탄 2500장 후원에 이어 올해도 연중 모금행사를 펼쳐 연말 독거노인분들에게 직접 배달 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나눔은 소양강댐 효나눔복지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이다. 지난 6월 영정사진 메이크업 봉사로 만난 어르신들을 학교로 초청해 피부마사지,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하



고 있다.

전공과 연계된 실습을 봉사활동으로 연결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엄기훈 춘천 한샘고 화장품응용과학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나눔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적극적으로 바뀌는 등 좋은 인성을 쌓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전통주를 찾아서”

춘천시립도서관 10월 인문학강좌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자가용 양조면허 폐지 시행 이전만 해도 마을 곳곳 집집마다 술 빚는 향이 해가 질 때면 그윽하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굴곡의 시절은 우리의 문화 또한 변화시켰다. 해방 이후 이념문인들은 “독립을 해야 할 시점이고 쌀 구경도 어려운데 웬 술타령”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보였고, 근대화가 시작되는 1965년에는 양곡관리법을 시행해 쌀을 이용한 술 제조를 금지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옛것을 찾는다. 우리의 바탕을 그리워하는 본질적 추구인 셈이다. 춘천시립도서관은 10월



인문학강좌로 <전통주를 찾아서>를 준비한다. 민속주 연구가 조태환 씨가 술에 대한 이해, 전통주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4주간 강의를 진행한다. 직접 술을 빚어볼 수 있는 간략한 실습과정도 마련된다.

조씨는 “주위의 흔한 재료를 이용해 술을 빚어 왔던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이번 시간을 통해 많이 공유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245-5103>

명예시민기자 이우진

절망 대신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삶

사업 실패 아픔 딛고 봉사로 새 인생 살아가는 김갑섭 씨

김갑섭(49)씨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든다면 꽤 높은 시청률이 나올 듯하다.

20대 초반, 군 제대 후 김 씨가 제일 먼저 일하게 된 곳은 제일제당 햄 대리점이었다. 밤낮 성실히 일하는 김 씨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이 6년 후 아무 조건 없이 햄 대리점 하나를 뚝 떼 줬다.

맨손으로 시작해 6년 만에 대리점 사장이 되어 유통업에 눈을 뜬 그는 8년 동안 정신없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다 IMF를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다. 돈도 집도 사람도.

그러나 평소 대인관계를 잘 유지 해온 덕에 바로 주식회사 우일에 입사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딱 끊고 대신 그가 잡은 것이 색소폰이었다. 몇년간 색소폰을 열심히 연습한 그가 찾아간 곳은 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이었다.

자신의 연주를 들으며 아픔으로 찌든 얼굴에 서서히 웃음이 번지는 걸 보면서 ‘이전 나한테 봉사하는 거다’란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를 해오고 있다.

5년 전부터 페스티벌 팝스오케스트라를 조직해 애민보육원생들과 함께 공연하며 수익금 전체를 불우이웃과 가정형



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고 있는 김 씨는 지난 한해에만 60회가 넘는 자선공연과 재능기부를 했다.

인생의 바닥에서 숨 쉬기조차 힘들었을 때 그를 잡아준 것이 색소폰 말고 또 있다. 교육이다.

그는 지금도 살면서 자신이 느낀해진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면 ‘뭐 교육받을 거 없나?’ 하며 자신의 중심을 잡아줄 교육을 찾아 나선다.

그가 최근에 받은 교육은 ‘데일 카네기 CEO와 정’으로 이런 새로운 배움을 통해 계속 자신을 재충전하고 있다. 자신의 배움과 경험을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만나 나누는 것 또한 그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우일토건의 부사장이 된 것이다. 13년 전 자신이 맘으로 쌓아올린 사업체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절망을 선택하기 훨씬 쉬운 조건에서도 절망 대신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김갑섭 씨. 그 선택의 결과 그는 ‘나누고 주는 것의 기쁨과 보람’을 안고 사는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김희은 (본지 상임위원)

시민제보

터미널 사거리 도로표지판 운전자 눈에 잘 안 보여

춘천의 관문인 터미널 사거리 주변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이 교통 신호등과 가로수 등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만큼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서 춘천 입구 방향의 터미널 사거리는 춘천의 관문답게 여러 종류의 안내 표지판이 걸려있어 혼잡함을 더하고 있다.

춘천을 처음 찾는 외지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 표지판을 사거리 앞쪽으로 설치하거나 퇴계사거리처럼 반대차선 위에도 도로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면 춘천을 찾는 초행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다.

명예시민기자 황순옥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인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 시속 30km이내로 서행해야

지난 9월 3일 아침, 봉의초등학교 앞에서는 경찰, 시청, 도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100여명의 기관·단체 회원들이 모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12년도 511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528명이 부상입고 도내에서도 14건이 발생하였다. 춘천에서도 지난 7월 퇴계동 초등학교 앞에서 10세가량의 초등학생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다친 사례가 있다.

어린이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추진하거나 한가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TIP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

1995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원생 100인 이상),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에 설정한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고, 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보호불이행, 주정차금지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면 일반도로보다 2배까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되고,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학교폭력 언제든지 신고하세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고민을 관심과 사랑으로 해결해야 하고 가정, 학교,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 학교 주변 순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반(班)단위 소규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117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학교폭력은 신고로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 국번 없이 117, 112
- 안전드림 홈페이지 www.safe182.go.kr
- 휴대폰 문자신고 #117
- 춘천경찰서 청소년계 : 252-83858



장난전화 NO 112 허위·장난신고, 내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에 접수된 112 허위·장난신고는 7,415건으로 지난해 8,271건의 90%에 달하며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강도가 침입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51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2시간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허위신고자는 벌금 500만원과 996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112 허위·장난신고는 금전적인 피해뿐

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여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된다. 경찰은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허위·장난전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수확철 농산물 절도사건 증가

8월말까지 5건 ... 경찰 검문검색·순찰 강화

해마다 수확철과 추석 전후에는 농산물 절도사건이 급증한다. 올해는 집중호우,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춘천에서는 농산물 절도사건이 2012년 4건이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5건이 발생하였다. 대부분 장뇌삼, 인삼, 모목 등을 도난당했다.

경찰에서는 9월 4일부터 90일 동안 농·축산물 절도 예

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지역에 대하여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 개인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홍보·순찰 병행, 검문검색 강화, 자율방범대와 협력 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확한 농산물은 창고나 집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낫선 사람이나 차량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경찰은 당부했다.

가정폭력사건 인식전환이 필요

경찰, 가택진입시 유형력 행사...피해자 보호조치 등 적극 대응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그릇된 인식중의 하나가 가족 내의 폭행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관대하고 자녀에 대한 폭행이 훈육목적으로 이해되고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그럴 수도 있는 사소한 다툼으로 경시된다는 것이다.

춘천지법은 지난 6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 등 사회적 대처가 적극 논의되는 가운데 아내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이던 가정폭력 사범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

속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사건을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장출입·조사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가택진입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해자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로 신고하고 상담을 원할 경우 아동여성성체(☎253-50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춘천시의회 의정 아카데미 운영

춘천시의회에서는 2013년 매 분기별로 춘천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반복적인 의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의정활동의 경쟁력 확보와 신선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4분기 의정아카데미

- 제목 : 창조경제 시대의 춘천 발전전략
- 강사 : 한림대학교 성경룡 교수
- 일시 : 2013. 3. 26
- 주요 강의 내용
 -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발상 및 균형 발전전략
 - 춘천의 도시 브랜드 제안 : 아름답고 행복한 창조도시



2/4분기 의정아카데미

- 제목 : 평생학습과 시민문화의 창조
- 강사 : 성공회대학교 김찬호 교수
- 일시 : 2013. 6. 25
- 주요 강의 내용
 - 창조적 문화와 공간
 - 배움을 통해 디자인하는 마을의 예
 -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



3/4분기 의정아카데미

- 현장연수(순천만 정원박람회 관람) 9.2 ~ 9.3
- 주요 내용
 - 21세기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 휴식공간 확충사례 연구
 - 자연생태계를 항구적으로 보전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변화의 필요성 연구 기회를 마련했다.



보다 상세한 의정소식은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2013. 8. 20 춘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13. 9. 4 어린이 보호차량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춘천시의회 어린이의회 운영

춘천시의회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서 토론과 표결 등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지방자치의 참뜻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 2013 어린이의회 운영 개요
 - 일 시 : 2013. 6. 20(1차 실시), 2013. 9. 24(2, 3차 실시)
 - 장 소 :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 대 상 : 춘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
- 운영일시 : 2013. 6. 20
- 대 상 : 춘천시 성림초등학교 어린이회 39명
- 안 건
 - 성림초등학교 제1기 춘천시 어린이의회 회기 결정 건
 - 춘천시 성림초등학교 환경관리 조례안
- 향후 계획
 - 일 시 : 2013. 9. 24
 - 대 상 : 호반초등학교, 봉의초등학교



2013년도 향후 회기일정

회차	일 정	주 요 안 건
241차 임시회	2013.10.4.~10.14	제2회 추경, 공유재산, 조례안 등
242차 정례회	2013. 12. 2~ 12.20	- 2014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 - 2013년도 정리추경 및 업무 추진실적 보고 - 시정에 관한 질문 - 조례안 등 제출 및 발의 안건 처리

※ 일정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봄내골 소식

- 효자동 길성상회(장길성, 장운호)는 9월 12일 시청을 방문, 사업장 이전 축의금으로 받은 전액 537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 거두주유소 대표 김정배(전 후평3동주민자치위원장)씨는 9월12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쌀(10kg) 20포(50만원 상당)를 후평3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 롯데주류 춘천지점(지점장 조평희)과 조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노석호)는 9월 11일 조운동주민센터를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10kg) 62포(롯데주류 42포, 위원회 20포)를 기탁했다.



- 남면 후동리(이장 송병림)와 파가나가 컨트리클럽(최상진 대표이사)은 9월 6일 지역주민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트리클럽의실에서 도랑가꾸기 1사 1천(川) 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두 단체는 도랑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청정마을 조성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 효자1동 복지위원회(위원장 박인호)는 9월16일 어려운 이웃 3가정에 상품권(6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효자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대)는 9월1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다.



- 춘천우체국(국장 김평석)은 9월17일 저소득 2가구에 후원금(3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 춘천시여성회관 희망나눔미 봉사단(단장 최경숙)은 8월20일 봉의여자중학교(교장 이진수)를 방문, 장학금 30만원을 전달하였다.



- 신북읍 심우정사(최용순 스님)는 9월6일 불우이웃을 위해 쌀(10kg) 50포를 신북읍사무소에 전달했다.

- 운교동 조석중(정선달 대표)씨는 9월12일 저소득가정을 위해 쌀(10kg) 10포(2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 춘천성도교회(담임목사 이정화)는 9월1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햅쌀 55포(210만원 상당)를 효자1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는 여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춘천시 침수 피해

146가구에 4,380만원을 지원했다.

- 신북읍 시골막국수(대표 안춘현)는 9월4일 추석을 맞아 노인과 불우이웃을 위해 라면 100상자(190만원 상당)를 읍사무소에 전달했다.



- 춘천동부노인복지관(관장 정도웅)은 9월 10일 복지관 내에서 회원어르신, 재가어르신, 자비손어르신 등 약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송편빚기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 춘천YWCA(회장 심정례)는 8월24일 M백화점 앞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는 여러 업체의 협조로 준비된 물품(EM제품, 식료품, 의류, 홈패션, 천연염색 제품 등)이 판매되었다.

- 퇴계동 자원봉사단(단장 김혜옥)은 9월14일 소주 병뚜껑 모집 운동으로 모은 57만원의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 60가구에 라면 1상자씩을 전달했다.

- 한림성심대 치위생과(장선옥 교수)학생들은 8월29일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 및 지역주민 30여명에게 무료구강검진과 치솔질교육을 실시하였다.



● 춘천노인일자지역협의회는 8월30일 춘천시여성회관에서 일자리참여노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춘천시 부시장으로부터 노인일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설명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전천리 통나무집닭갈비(대표 김형우)는 9월11일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 50만원을 신북읍사무소에 전달했다.

● 한국폴리텍Ⅲ대학(학장 정용섭)은 9월9일 동산면사무소에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쌀10kg 16포(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 효자동 최정희(여·61)씨는 어려운 이웃 할머니께 3년동안 쌀, 반찬, 의류 등을 지원하고 파지를 모아주는 등 이웃사랑을 남몰래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 춘천소방서(서장 우원기)와 춘천한방병원(원장 천성준)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후평2동 주공7단지 아파트 경로당을 9월13일 방문하여, 쌀(10kg) 5포와 사과 2상자를 전달하고, 침시술 봉사를 하였다.



● 후평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석근호)는 8월20일, 21일 이틀간 후평2동 예비군 동대 후반기 향방훈련참여자 140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야식을 제공하고 격려했다.

● 신북읍 샘뜸명물닭갈비(대표 이상구)는 9월2일 천천1리 노인 50여명 초청하여 중식을 제공했다.

● 온의동 우체통 카페(대표 전미라)는 9월11일 불우이웃을 위해 라면 20상자(40만원 상당)를 자치센터에 기탁하였다.

● 1001안경원(대표 유현중)은 9월4일 후평3동주민센터에서 관내 14개 경로당에 돋보기 안경 250점(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 강원효장레식장(대표이사 신정복)은 8월19일 효자3동주민센터를 방문, 경로당에 전해 달라며 42인치 TV(100만원상당)를 기증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지부(본부장 이균익)는 9월3일 자매결연 마을인 북산면 조교리에 냉장고, 선풍기 등 물품을 후원하였다.



● 춘천경찰서와 이마트춘천점은 추석을 맞아 말기암 환자가 거주하는 춘천호스피스를 9월9일 방문하여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주변 잡초제거와 청소, 빨래, 생일파티 축하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춘천경찰서는 9월6일 춘천에 소재한 아파트관리소장 62명을 초청하여 제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아파트 관리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절도사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절도 예방법을 소개하였다.



● 사농동 춘천도매물류마트(대표 최한식)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100만원상당의 선물세트(비누, 치약 등) 70개와 세계 10세트를 신사우동주민센터에 기탁하였다.

●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장 김대용 외 5명의 직원은 9월16일 동산면 조양리의 어려운 가정을 찾아 쌀, 라면 등(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 강남동 통친회(통장모임)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료통장 자녀를 위해 9월6일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 후평2동 7단지경로당(회장 주만길)은 8월21일 후평2동 주민센터를 방문, 음료수 100병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춘천남부새마을금고(이사장 지성배)는 9월10일과 1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퇴계동 주민센터와 석사동주민자치센터에 각각 쌀(10kg) 50포를 기탁했다.



강습 · 교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통

- 접수기간 : 9.23~9.27(방문 선착순)
- 수강기간 : 10.1~12.31
- 수강료 : 3개월분 3만원 선납(개인도구, 재료비, 교재비 수강자 부담, 10명 미만 프로그램 폐강될 수 있음. 수강자, 모·부자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100%감면, 65세이상 경로우대자 50%감면) □ 기타 : 합창반은 오디션 있음
- 문의 : ☎250-3612

프로그램	운영일정		인원
서예	월,금	10:00~11:30	20
논어와 도덕경	금	14:00~16:00	30
POP예쁜글씨	목	10:00~13:00	20
가곡	화	10:00~13:00	30
합창	목	19:00~22:00	40
민요*장구	월	14:00~17:00	20
오카리나	월	10:00~13:00	20
요가(여성)	화,금	10:00~11:30	20
건강체조	수,금	14:00~15:00	20
웃음치료	월,목	10:00~11:30	30
라인댄스	화,목	15:00~16:30	20
유화·아크리화	목	14:00~17:00	20

근화동

- 모집기간 : 9.23~9.26
- 운영기간 : 10.1~12.31
- 대상 : 관내·외 주민
- 수강료 : 3개월분 3만원 선납(단,댄스강습은 4만5천원) ※수급자, 모·부자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100% 감면, 65세 이상 50% 감면
- 수강생 선정기준 : 1순위(근화동 등록거주 주민) 2순위(타 지역주민 선착순)
- 기타 : 신청 인원 10명 이하면 폐강될 수 있음. 매트와 실내운동화 준비
- 문의 : ☎250-3615, 245-5632

프로그램	인원	운영일정	
댄스스포츠 초급	30	월,수	10:00~12:00
댄스스포츠 중급	30	화,금	10:00~12:00
사물(난타)놀이 초급	20	수	12:00~14:00
사물(난타)놀이 중급	20	월	12:00~14:00
라인댄스	30	수 목	14:00~16:00 10:00~12:00
요가교실	20	화,금	14:30~16:00
필라테스	20	화,목	16:00~17:30
무료민요,판소리	30	월	14:30~16:00

동내면

- 모집기간 : 9.23~9.30(방문접수)
- 운영기간 : 10.1~12.31
- 대상 : 시민(초과시 관내주민 우선)
- 수강료 : 3개월분 3만원 선납(단, 노래,민요교실은 4만5천원, 배드민턴교실 6만원)
- ※ 만65세 이상 50% 감면,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
- 기타 : 장비(라켓 등)는 본인 준비, 최소인원(10명)에 미달되면 프로그램 미개설
- 문의 : ☎250-3605

프로그램	운영일정		인원
노래교실	월,수	13:30~15:30	40
요가교실	월,수	10:00~11:30	40
라인댄스교실	화,금	10:00~11:30	40
민요교실	수,금	10:00~12:00	30
배드민턴교실	화,목,토	05:30~07:30	30
밸리댄스교실	토,일	13:00~14:30	30

석사동

- 신청기간 : 9.23~9.27(관내·외 주민 선착순)
- 수강기간 : 10월~12월
- 수강료 : 3개월분 3만원 선납(단, 수급자, 모·부자 가정,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0%, 경로우대자 50% 감면)
- 기타 : 모집정원의 60%미만일 때는 폐강될 수 있음.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250-3622, 245-5768

프로그램	인원	운영일정	
기체조	25	수,금	10:00~11:00
밸리댄스	30	화	10:00~12:00
필라테스	25	수	11:10~12:00
		금	11:10~12:00
요가교실1	30	수	14:40~15:40
		금	14:00~15:00
요가교실2	30	수	15:50~16:50
		금	15:10~16:10
라틴댄스 기초	20	월,목	10:00~11:00
모던댄스	20	월,목	11:00~12:00
기타교실(초급)	25	금	16:30~18:30
기타교실(중급)	25	금	19:00~21:00
민요교실	30	목	14:00~17:00
노래교실	50	월	14:00~16:00
한국무용	15	화	16:00~19:00
		수	12:00~13:00
난타교실(초중급)	각20	월	19:00~21:00
		목	19:00~21:00

소양동

- 신청기간 : 9.23~9.27
- 수강기간 : 10.1~12.31
- 수강료 : 3개월분 선납(*요가교실,우리장수춤체조·3만원/*밸리댄스,민요교실,노래교실·4만5천원)*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만65세 이상 시민 50% 감면.
- 기타사항 :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의 2/3미만일 때는 폐강될 수 있음.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문의 : ☎250-3611

프로그램	인원	운영일정	
요가교실	40	수,금	10:00~11:30
밸리댄스	30	월	10:00~12:00
		목	12:30~14:30
우리(장수)춤체조	20	월,수	14:00~15:30
민요교실	25	월,수	10:00~12:00
노래교실	40	월,수	13:00~15:00
게이트볼(초급)	10	월~금	15:00~16:00
무료탁구교실(청소년)	20	토	13:00~15:00

신사우동

- 접수기간 : 9.24~9.26(방문 선착순)
- 운영기간 : 10.1~12.31
- 수강료 : 3개월분 3만원 선납(단,댄스스포츠와 경기민요는 4만5천원)*개인도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수급자,모·부자가정,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100%감면(증명서 지참). 65세이상 경로우대자 50%감면(신분증 지참)
- *동아리 다이어트댄스는 감면없음.
- 기타 : 접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미개설될 수 있음. □ 문의 : ☎245-5846

프로그램	운영일정		인원
요가(여자A)	화,목	09:00~10:30	40
요가(여자B)	화,목	10:30~12:00	40
무료노인건강교실	월	14:00~15:30	40
	금	09:30~11:00	
라인댄스	월	12:30~14:00	40
	금	11:00~12:30	
탁구 A	월,수	10:00~11:00	15
탁구 B	월,수	11:00~12:00	15
댄스스포츠	화,목	13:00~15:00	30
경기민요(장구)	수,토	13:00~15:00	20
동아리(다이어트댄스)	월,수	10:00~11:30	40

조운동

- 모집기간 : 9.23~9.27(방문접수)
- 운영일정 : 10.1~12.31

- 수강료 : 3개월분 3만원 선납(단, 개인도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하모니카, 리코더 3개월 1만5천원, 65세 이상 50% 수강료 감면
- 기타 : 접수 인원이 10명에 미달되면 프로그램은 미개설, 조운동 주민 우선 선정
- 문의 : ☎250-3613

프로그램	운영일정		인원
라인댄스	월,수	14:00~16:00	25
댄스스포츠	화,목	14:00~16:00	20
노래교실	화,금	14:00~16:00	30
국학기공	월,수	10:00~11:30	20
하모니카	월	10:00~12:00	20
리 코 더	월	14:00~16:00	20

효자1동

- 모집기간 : 9.23~9.27(방문 선착순)
- 강좌기간 : 10.1~12.31
- 수강료 : 3개월 4만5천원(단,웃음치료 3만원, 부부댄스스포츠 6만원)
- ※수급자, 모·부자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0%, 경로우대자는 50%감면
- 기타 : 개인도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모집인원의 60%미만인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음.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250-3619

프로그램	인원	운영일정	
노래교실	30	화,목	10:00~12:00
통기타교실	30	수,목	13:00~15:00
라틴댄스	20	수	10:00~12:00
		목	13:30~15:30
모던댄스	20	월,금	14:00~16:00
한국무용	20	수	13:00~15:00
		금	09:00~11:00
요가(호흡·명상)	30	화,금	11:00~13:00
민요교실	25	월,금	10:00~12:00
웃음치료	50	월	13:00~14:30
		수	10:00~11:30
우쿨렐레(성인)	25	월	16:00~18:00
		목	15:30~17:30
무료 우쿨렐레(청소년)	30	토	10:00~12:00
댄스스포츠(부부반)	20	토	10:00~12:00

효자2동

- 신청기간 : 9.23~9.27((23~24일 효자2동 주민 우선접수)
- 신청대상 : 관내외 주민(선착순)
- 수강기간 : 10.1~12월말

- 수강료 : 3개월분 3만원 선납(단,노래교실은 4만5천원)※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100%감면(경로우대자 50%감면)※접수인원이 최소 수강인원(10명)에 미달될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250-3620

프로그램	운영일정		인원
노래교실	수,금	10:00~12:00	50
라틴댄스	화,금	09:30~11:00	20
모던댄스	화,금	11:00~12:30	20
요 가	월,수,금	15:00~16:00	35
탁구(오전)	월,목	10:00~11:30	25
탁구(오후)	월,목	13:00~14:30	25
민요교실	화,목	10:00~11:30	20
라인월빙댄스	화	15:00~16:00	20
	수	10:00~12:00	20

효자3동

- 접수기간 : 9.25~9.26
- 수강기간 : 10월~12월
- 수강료 : 3개월분 4만5천원(단,요가는 3만원)
- 기타 : 효자3동 주민 우선 접수. 모집인원 미달 시 타 읍면동 주민 선착순 접수
- 문의 : ☎245-5748

프로그램	운영일정		인원
한국무용	월	11:00 ~ 13:00	15
	금	13:00 ~ 15:00	15
탁구교실	월,수	15:00 ~ 17:00	20
노래체조교실	화	14:00 ~ 16:00	25
	금	10:00 ~ 12:00	25
라인댄스	월	09:00 ~ 11:00	30
	수	10:00 ~ 12:00	30
요가(오전)	화,수,금	09:00 ~ 10:00	30
요가(오후)	화,금	17:30 ~ 18:30	25
	수	17:00 ~ 18:00	25
민요	화,목	10:00 ~ 12:00	20

후평1동

- 모집기간 : 9.30~10.1
- 수강기간 : 10.2~12.31
- 수강료 : 3개월분 4만5천원 ※단, 수급자, 모·부자가정,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100% 감면, 만65세 이상은 50% 감면(증명서 제출)
- 기타 : 후평1동 주민 우선접수(선착순 마감, 신분증 지참) □ 문의 : ☎245-5652

프로그램	인원	운영일정	
요가교실	35	화,목	10:30~12:30
댄스스포츠	35	월,수	13:00~15:00

라인댄스	35	수,금	10:00~12:00
한국무용	30	월	10:00~12:00
		금	13:00~15:00
노래교실	50	수,금	13:30~15:30
한글서예	30	화,목	10:00~12:00
한문서예	30	화,목	14:00~16:00
장수춤제조	35	화,목	14:00~16:00

후평2동

- 모집기간 : 9.23~9.27(방문접수)
- 운영기간 : 10.1~12.31
- 대상 : 주민 누구나(초과시 후평2동주민 우선)
- 수강료 : 3개월분 3만원 선납(단,건강체조및 노래교실은 4만5천원)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 만65세 이상 시민은 50% 감면 □ 문의 : ☎245-5675, 250-3617

프로그램	운영일정		인원
건강체조및노래교실	월,수	10:00~12:00	30
한글서예교실	월,수	10:00~11:30	15
라인댄스(초급)	화,목	09:00~10:30	30
라인댄스(중급)	화,목	10:30~12:00	30
한문서예교실	화,목	14:00~15:30	15
경기민요교실	화,금	14:00~15:30	30
기타교실	화	14:00~17:00	15
사군자	금	10:00~11:30	15
		14:00~15:30	
무료탁구교실(초,중등)	토	10:00~12:00	20

후평3동

- 신청기간 : 9.30~10.2
- 운영기간 : 10.7~12.31
- 수강료 : 3만원(제빵반 재료비 별도, 색소폰 지참)※만 65세이상 수강료 50% 감면
- 기타 : 후평3동 주민 우선 선발. 정원초과한 프로그램은 추첨(추첨일시/장소 10.4/10시/후평3동자치센터). 모집정원의 60% 미만 프로그램은 미개설 □ 문의 : ☎250-3618

프로그램	운영일정		인원
산수화	월,목	10:00~11:30	20
수채화	수,금	10:00~11:30	20
제빵반(A)	월	10:00~13:00	15
제빵반(B)	수	10:00~13:00	15
탁구(초급)	화,목	14:00~15:30	15
라인댄스	월,수	14:00~15:30	25
댄스스포츠	수,금	10:00~11:30	25
노래교실	화,목	14:00~15:30	40
요 가	화,금	16:30~18:00	25
색소폰	화	16:00~18:00	15

소양호 무료환경해설

- 운영기간 : 9.7~10.27(주말, 공휴일 진행/추석연휴 제외)
- 세부사항 : 1코스(소양강댐 정상→팔각정) 2코스(청평사 숲길 입구→청평사)
- 문의 : (사)춘천생명의숲 ☎242-7454
- 의암빙상장 갑승 · 이용
- 프로그램 : 스케이트교실(7만원/7세(화,목)초중고(토,일) □ 이용안내 : 성인(개인3,400원/개인단체2,800원) 어린이, 학생, 청소년, 노인, 군인(개인2,800원/단체2,200원) ※스케이트렌탈비2,500원/이용시간 13~18시
- 문의 : ☎ 250-3517, 263-7302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 길위의 인문학 수강생 모집 : 경주시 남산, 겨례의 땅 부처님 땅/ 강연 10. 1(화/19시) 시립도서관/탐방 10.5(토 06시) 경주시 남산/선착순 40명/문의 ☎ 245-5103
- 10월 인문학 강좌 : 전통주를 찾아서/10월 매주 목(19시)/장소 시립도서관/ 강사 조태환(민속주 연구가)/현장접수/문의 ☎245-5109
- 춘천문학여행 : 은마는 오지 않는다(안정효), 황금비늘(이외수)/9.4(수) 09:30/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선착순 40명/ 소요시간 6시간/문의 ☎ 245-5109
- 시립도서관 치유나무(하반기) 강좌 : 10월 매주 수 10시/장소 시립도서관/ 가족간 대화 소통하기/선착순 40명/문의 ☎245-5109
- 1318도서관 운영 : 9.21~12.21(매주 토 10시)/중고생 30명(선착순)/장소 동내도서관/청소년 독서강좌 및 봉사활동 병행/문의 ☎245-5126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 대상 : 10명(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
- 교육일정 : 10.15(화/10시)*매주1회 총6회
- 문의 : 강원도광역치매센터 (☎257-9164~5)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프로그램 : 드림(청소년, 성인, 전문가) 해금(청소년, 성인) 통기타(청소년, 성인)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c1318.or.kr) 참조
- 꿈을 그리는 청소년 모집 : 초등생3~6학년 40명/접수 10.12까지/교육 10.19, 10.26/직업 체험학습
- 자연이 주는 선물 체험 : 초등생1~4학년 40명/접수 10.5까지/교육 10.12/농작물 수확체험 등
- 문의 : ☎251-1318

춘천YWCA 교육<☎254-4878>

- 아이돌보미 교육생 : 모집10.31까지(선착순 20명)/교육 11.4~11.15

- 살림돌보미 교육생 : 모집10.18까지/교육 10.21~10.25
- EM생활환경 무료교육생 : 교육10.16/10시/전화 신청
- 반찬전문도우미 서비스 실시 : 이용료 별도 문의바람

춘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 고령자 정보화 무료교육 : 한글2010(초급)/컴퓨터 문서작성/교육일정 10.4~10.31 목/금, 오후3시~6시/대상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누구나
- 재취업설계 집단상담프로그램 WIN 참가자 모집 : 대상 취업희망여성(실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 회당 선착순 10명/매월 2회 수시모집/교육시간 월~금(09:30~13:30)/참가비 무료, 간식제공/방문 접수(신청서, 반명함 사진 1매)
- 일반 프로그램 : 홈페이지 참조 (www.ccwomen.or.kr)
- 문의 : ☎243-6474

아토피 · 천식 교육

- 일시 : 10.10(목) 13시
- 대상 : 40명(아토피질환 가족과 시민)
- 강사 : 한의사 김도경, 천연화장품 전문강사 장선미
- 문의 : 춘천시보건소(☎250-4566)

ADHD 부모교육

- 주제 : 산만한 우리아이 바르게 키워봐요
- 대상 : 관심 있는 분(10~15명)
- 일시 : 10.16~11.6(매주 수 11시)
- 참가비 : 2만원
- 문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44-1391-2

당뇨 교실

- 운영일시 : 10월10일/17일/24일/31일(14시/매주 목,4주 프로그램)
- 대상 : 당뇨환자와 가족 25명
- 문의 : 춘천시보건소 ☎250-4561, 4034

국립춘천박물관 10월 프로그램

- 특별기획전 : △흙에서 깨어난 강원의 신라 문화/8.13~10.6/유물 300여점 전시
- 공동전시 : △일본 돗토리현교류전(10.12~10.17/서예,도예 등 60여점 전시) △강원서에 전통과 계승(10.22~10.30/강원서학회, 국립춘천박물관 공동 전시)
- 문화행사 : △춘천클라리넷클럽 제5회 정기 연주회/10.19(토) 18시/박물관 강당 △도립예술탄 전통공연/매주 금 14시/ 박물관 대강당 △가족영화상영/매주 토 · 일 15시/박물관 영화관
- 박물관 교육 : △역사를 품은 토요박물관(어린이 및 동반가족 40명/2,4주 토 10시)
- △초·중·고교원 박물관 현지직무연수(관내 교원

40명/매주 수 16시) △어린이문화사랑방(6세~13세 어린이/매주 화~일 10시/헨즈온 방식 문화재 놀이터

모 집 · 신 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대상 : 맞벌이, 한 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초등생(4~6학년)
- 프로그램 : 영어, 수학 외 체험활동 (월~토/격주)
- 문의 : 강원도청소년수련관 ☎255-6604

당뇨병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 모집기간 : 12월 31일까지
- 대상자 : 제2형 당뇨병이며,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한가지의 경구용 혈당강화제를 소량 사용한 환자
- 목적 : 주 1회 당뇨병 피하주사약제가 글리메피리드와 비교하여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관찰
- 방법 : 최대 34주 동안 9번 병원방문, 1번 전화 방문, 심전도 · 혈액 · 소변 · 자가혈당검사
- 지원 : 검사, 임상시험의약품, 소정의 교통비
- 문의 : 강원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258-2206

소상공인대학 경영학교 교육생 모집

- 교육대상 : 소상공인
- 교육인원 : 회차별 22명
- 교육일자 : 10.10~10.11/10.14~10.15/10.24~10.25
- 문의 : (사)강원여성경영인협회 (☎251-9080~1)

아버지학교 개설

- 주제 :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 대상 : 춘천거주 아버지 누구나(100명)
- 개설기간 : 9.28~10.26(매주 토 17시~22시)
- 문의 : 춘천동부교회(☎252-5959) 010-7572-3103

주말문화여행 꿈지락 회원 모집

- 모집기간 : 9.23~10.9
- 운영기간 : 10.12~11.2(토13~16시)
- 프로그램 : 연극/미술/영상/생활문화/사진
- 대상 : 초·중·고생(각 프로그램당 20명)
- 참가비 : 2만원
- 문의 : 동네방네(☎256-540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 융자종류 및 대상 :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교자녀학자금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

고,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용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한 월평균소득 133만원 이하 근로자 ▶임금제불생계비·용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 4,000만원 이하 근로자

□ 용자한도 : 1,000만원(단,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300만원)

□ 용자조건 : 연리 3%(보증료 0.9~1% 별도),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춘천시지사 ☎ 240-6164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선발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초·중·고등학생

□ 신청기간 : 9.2~10.31

□ 문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261-5000, 080-749-7171

여성회관 산악회원 모집

□ 대상 : 산을 좋아하는 여성(정회원제 50명)

□ 산행주기 : 첫째주, 세째주 수요일(월2회)

□ 가입비 : 3만원(*월회비는 3만원)

□ 문의 : 산악회장(010-6329-3791) ☎ 250-3539

행 사 · 전 시

제1회 실레마을 이야기 잔치

□ 10.18(금) : 김유정 신인문학상 시상식, 김유정백일장, 마당극 '봄봄' 공연

□ 10.19(토) : 전통혼례식, 떡메치기 체험, 전국 이야기 시합(신청마감 10.4), 실레마을 어린이 음악회(신청마감 10.4), 풍물장터

□ 10.20(일) : 소설 캐릭터 및 장면그리기, 어린이들 이야기 겨루기(신청마감 10.4), 소설 옷음극 경연(신청마감 10.4), 민속놀이, 풍물장터

□ 문의 : ☎ 261-4650, 264-4650

KBS춘천방송총국 앞마당 콘서트

□ 일시 : 10월달 목요일 저녁7시(10일, 17일, 24일, 31일)

□ 장소 : KBS춘천방송총국 앞마당

(※콘서트는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지는 행사입니다)

KBS춘천방송총국 전시회

□ 주제 : 목촌회 전시회

□ 일시 : 9.27~10.2

□ 장소 : KBS춘천방송총국 1층 전시실

역대 대통령 유물 전시회

□ 일시 : 10.14~10.20

□ 장소 : KBS춘천방송총국 1층 전시실

귀농귀촌 문화이모작

□ 주제 : 도시로 간 농부

□ 대상 :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

□ 일정 : 간담회(10.17~11.21/매주 목19시) 캠프(11.2~11.3/11.23~11.24)

□ 문의 :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010-8021-2813)

화가 초대전

□ 매우 향기로운 세상 (작가 홍지철)/9.28~10.11(월요일 휴무)/장소 파피루스 갤러리/문의 070-8817-4592

□ 복(福) 들어갑니다(작가 이광택), 일상을 꿈꾸다(작가 강성우)/10.2~10.8(초대 10.2/17시)/장소 춘천문화원 금병실

원화 초대전

□ 주제 : 6-1반 구덕천(작가 광정우)

□ 기간 : 10.21~10.26(월요일 휴무)

□ 장소 : 파피루스 갤러리

□ 문의 : 070-8817-4592

어린이 뮤지컬 공연

□ 작품명 : 책먹는 여우

□ 일시 : 10.18(금) 11시/10.19(토) 11시, 14시, 16시 □ 장소 :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 문의 : ☎ 255-6663

제1차 세계전통시인협회 한국총회

□ 시기 : 10.24(목)~10.25(금)

□ 장소 : 라테나 콘도미니엄

□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9개국(약 180명)

□ 주최 : 세계전통시인협회 한국본부 (010-5473-6926)

행 정 · 기 관

강원권 TV채널 재배치 안내

■ 채널재배치 이유 :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디지털방송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디지털방송대역으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집에서 보는 TV채널은 바뀌지 않습니다.)

■ 2013년 10월 16일 오후 2시 이후 TV방송이 안 나올 경우 리모컨에 있는 메뉴를 눌러 자동채널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콜센터 ☎ 124

민방위대원 1차 보충교육

□ 10.7(월) :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

□ 10.8(화) : 교동, 조운동, 후평1동, 효자2동

□ 10.9(수) : 근화동, 후평3동, 강남동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 안내

□ 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생활자, 장애인1~3급, 다문화가정, 새터민 □ 지침물 : 주민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기타 해당 증명서 지참

□ 문의 : 춘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50-3694)

구 분	접종일정	접종장소	구 분	접종일정	접종장소
강남동	10.7~10.8 (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효자1동	10.10(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석사동	10.14~10.15(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근화동	10.16~10.17(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신북읍	10.18(09시~16시)	신북읍보건지소	퇴계동 일부	10.21~10.22(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후평2동	10.23~10.24(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효자2동	10.28~10.29(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약사명동	10.30(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다문화가정 새터민	10.31(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수급자 국가유공자	11.4(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복지시설 장애인	11.5(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미접종자	11.6~11.7(09시~16시)	시민복지회관	동면의 8개면	10.7~	해당 보건지소 계획 참조

분산 접종기관

신사우동	10.14~11.1(09시~16시) (중식12시~13시)	강원도재활병원	후평2동일부 효자3동	10.15~10.25(14시~16시)	강원대학병원
후평3동 대동다숲@	10.14~10.25(09시~16시) (중식12시30~13시30)	춘천노인전문병원	퇴계동 일부	10.07~10.18(09시~16시) (중식12시30~13시30)	가족보건의원
교동 후평1동	10.16~10.25 (13시30분~16시)	춘천성심병원	조운동	10.07~11.07(09시~19시) (중식13시~14시)	연세다나의원
소양동	10.14~11.01(13시30분~17시)	인성병원 (한국의원)	석사동스무숲 에비빌1차 주공8차·10차	10.14~11.07(09시~17시) (중식12시30~13시30)	중앙병원

- 10.10(목) : 석사동
- 10.11(금) : 효자1동, 퇴계동
- 10.14(월) : 소양동, 약사명동, 후평2동, 효자3동, 직장대
- 훈련시간 : 14~18시
- 문의 : 춘천시 안전총괄과 ☎250-3264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안내

- 설치일 : 2013.9.9
- 설치장소 : 동내면 동춘천농협 거두지점
- 문의 : 시청 민원실 ☎250-3228

-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
- 기존 등록차량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하여야 함
- * 1톤 미만 차량, 경형·소형,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제외
- 1대당 10만원의 보조금 지원(시청 교통과로 신청)

-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과태료
 - 문의 : 시 교통과 ☎250-4149
- ### 민유총포무기고 보관총기점검 안내
- 일시 : 매월 3째주 목요일(14~17시)
 - 장소 : 춘천경찰서
 - 대상 : 춘천경찰서에 보관중인 업종
 - 지참물 : 총포소지허가증, 총기손질장비, 주민등록증
 - 문의 : 춘천경찰서 ☎255-5000

2013년 춘천시 지방재정공시

〈춘천시 재정공시 제1호(2013. 8. 30)〉

◆ 우리 시의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조2,323억원으로 전년대비 2,2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058억원이며, 시민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4만원입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5,786억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은 479억원입니다. * 일반회계 지방채 129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회수 350억원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805억원이며, 시민1인당 지방채무는 29만1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약사천재정비 등 재산을 취득(935억원)하고, 거두농공단지 등을 처분(142억원)하여, 현재는 총40,80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7,461억원)보다 4,862억원이 많습니다.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3,458억원)보다 2,600억원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778억원)보다 2,008억원 많습니다.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611억원)보다 193억원 많고, 시민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08천원)보다 1만6천원 적습니다.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16,653억원)과 비교하여 2조4,156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시의 2012년도 '재정자립도'는 28.29%이며(전국평균 52.0%), '재정자주도'는 71.22%(전국평균 77.5%)입니다.

◆ 우리 시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3억원이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세입 측면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비율을 현저하게 낮추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매년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재정건전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 및 도시재정비, 캠프페이지 부지개발 등 새로운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과 도표는 시 홈페이지(www.chuncheon.go.kr→행정정보→지방재정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문의 : 예산과 ☎250-4772

알기 쉬운 지방세 길잡이 ⑬

지방세는 아는 만큼 혜택

서민주거안정지원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한시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전액 면제' 받으세요.

■ 감면기간과 감면율은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혜택이며, 85㎡ 이하는 전액 면제, 85㎡ 초과는 0.8%의 농특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의 범위는요?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유상거래(매매, 경락, 분양 등)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상속, 신축, 증여는 제외)

■ 취득세 면제 요건은요?

부부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취득일 현재, 20세 이상 기혼인 세대주 및 배우자가 취득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35세 미만 자녀 포함)

■ 미혼 또는 결혼예정자는 혜택이 없나요?

35세 이상 단독세대주 이거나 20세 이상 이면서, 60일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자 등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과 ☎250-4032〉



안전행정부

*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 감동체험수기 * * 공모

풀뿌리 지방자치 성과를 공유하고 경험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감동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공모부문

부 문	내 용
주민자치(참여) 우수사례	주민자치(참여)를 활성화하여 재난극복, 복리증진, 소득향상 등 지역현안 해결 성공(우수) 사례
주민행정서비스 감동체험 사례	주민행정서비스를 통해 감동과 보람 등을 느낀 사례(수기)

공모기간

2013. 8. 19 ~ 10. 2



※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참고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공모전 담당자(02-2100-3878)



"빛나라 기술한국!
미래희망 강원에서"



2013 강원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2013 Gangwon The 48th National skills Competition

2013. 9.30(월) ~ 10.7(월)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개최지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주최 : 고용노동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주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

후원 : 전국 17개 시·도(서울특별시·광역시·도)



| 경기장 안내 |

- 제1경기장 :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 제2경기장 : 열린경기장 / 구 캠프페이지
- 제3경기장 : 원주공업고등학교
- 제4경기장 : 강릉중앙고등학교
- 제5경기장 :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 주요행사 |

- 성공기원 특집콘서트 - 2013년 9월 27일(금) 19:00~21:00
- 개회식 - 2013년 9월 30일(월) 19:00~21:00
- 나눔과다짐한마당(시상식 및 폐회식)
- 2013년 10월 7일(월) 10:00~13:00

※ 장소 |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 부대행사 |

기술위원회의, 환영리셉션, Farewell Party, 입상작품 전시,
Skills World(숙련기술 테마파크) : 강원도홍보관, 기능경기주제관, 전통기능체험관
우수기업홍보관, 숙련기술체험관, 숙련기술서비스관
숙련기술경연장, 전통시장특산물판매장, 취업박람회
문화공연 등



2013 강원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홍보대사 / 걸스데이

대회 및 행사문의 :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 Tel : (033)-248-8562~3 ■ 홈페이지 : <http://skill.hrdkorea.or.kr>